

K-PE(Korea Private Equity)의 현주소

삼일PwC경영연구원

July 2023



Agenda

I. PE의 이해	02
II. 글로벌 PE 시장	10
III. 한국의 PE 시장 분석	20
IV. 한국의 주요 PE 사(GP)	34
V. PE 투자를 위한 산업별 전망	50
VI. 국내 PE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언	58

PE 시장 규모

	Global	국내 ²⁾
AUM (운용자산) '22년 6월 기준	7.6 조 달러 (한화 9,650조 원)	-
Fundraising ('22년)	6,550 억 달러 (한화 830조 원)	16.3 조 원
Investment ('22년)	2.4 조 달러 (한화 3,050조 원)	36.9 조 원
Exit ('22년)	5,650 억 달러 ¹⁾ (한화 720조 원)	18.1 조 원

1) PE 중 Buyout만 포함한 수치

2)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및 Non-PEF) 수치이나, Non-PEF의 영향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 非경영참여형 기관전용 사모펀드(Non-PEF)의 '22년 투자금액은 1.0조원, 회수금액은 0.1조원

* Global은 Preqin, McKinsey & Company, 국내는 금융감독원 자료 사용하여, 기준이 소폭 상이할 수 있음

** 환율은 22년 평균인 1,270원/\$ 적용



I.

PE의 이해



사모시장과 PE

-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자금조성 방식에 따라 공모와 사모로 구분
 - 공모(Public)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며, 사모(Private)는 특정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구성. 사모시장은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를 덜 받고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고위험성을 내포
- 사모시장은 투자 대상에 따라 크게 프라이빗 에퀴티와 사모채권, 실물자산으로 구성
 - 프라이빗 에퀴티(Private Equity, 이하 PE): 주로 특정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지분형 증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회사를 매입하고 3~5년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함
 - 사모채권(Private Debt): 대출형태의 자본 공급으로 경영권 없음
 - 실물자산(Real Asset): 부동산, 인프라, 천연자원 등에 대한 투자
- 투자 목적에 따라 PE와 헤지펀드로 사모시장을 구분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투자방식의 융합에 따라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음
 - PE: 경영참여 목적이며, 투자 기간이 중장기
 - 헤지펀드(Hedge Fund): 경영권과 관계 없이 수익을 내는데 주력하는 사모펀드로, 기업 지분 뿐만 아니라 채권, 금 등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모두 투자 대상

자본시장(Capital Market)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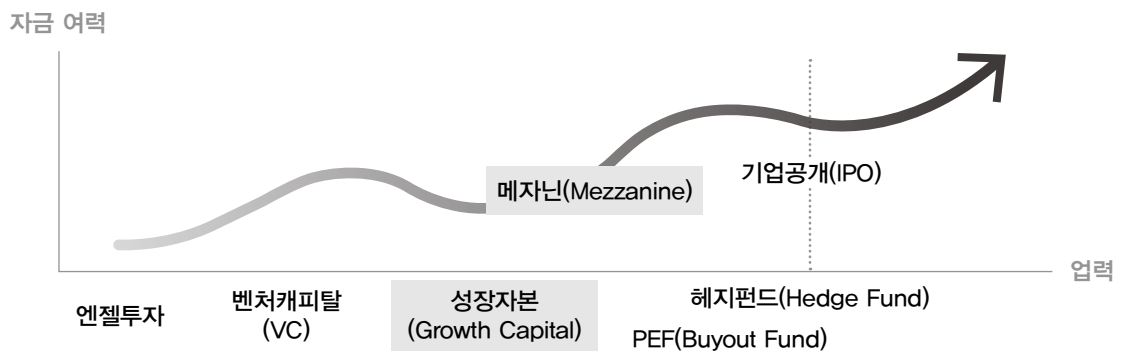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PE 투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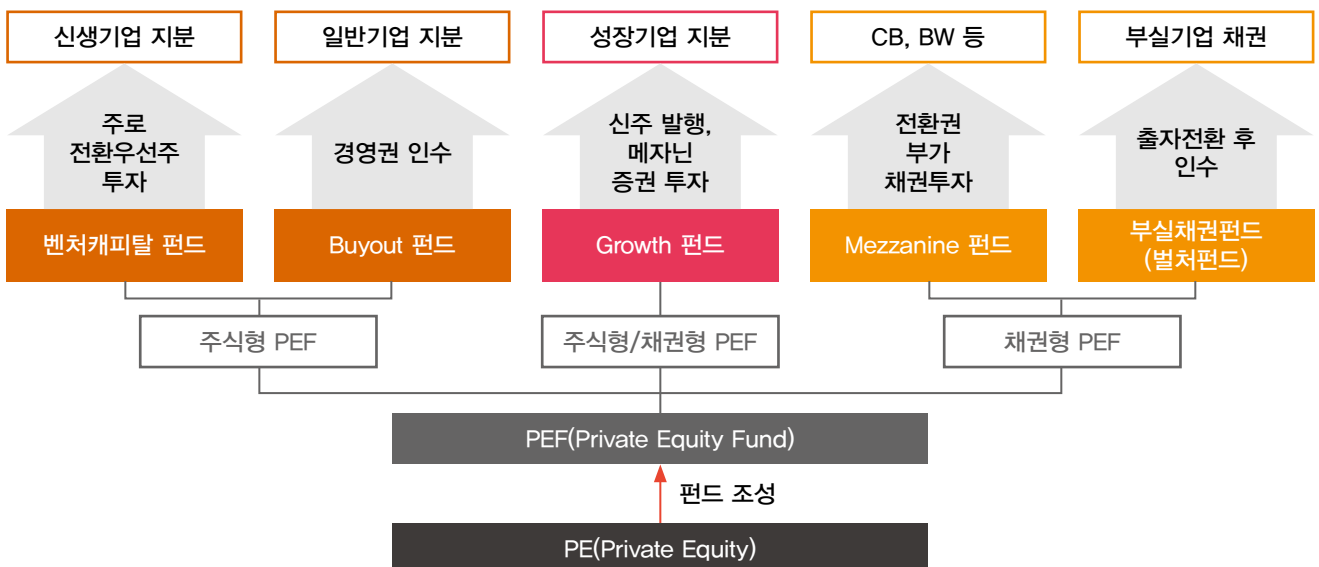
- PE는 투자대상에 따라 ① 창업단계의 기업의 주식이나 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② 기업의 지분이나 핵심자산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바이아웃(Buyout), ③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자본(Growth), ④ 부채와 지분투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CB, BW 등에 투자하는 메자닌(Mezzanine), ⑤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부실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는 부실채권 투자(Distressed debt investing)로 구분
- PE를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보통 Buyout을 지칭할 정도로, Buyout 형태의 투자가 일반적. 특히 초기 한국의 PE는 글로벌 PE 중 Buyout을 모델로 형성
- PE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를 PEF(Private Equity Fund) 라고 명칭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형태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PE의 투자 유형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PE 투자 유형 – 상세

벤처캐피탈

- 신기술이나 신사업모델을 가진 벤처기업에 투자
- VC의 지분참여는 형식상으로는 소수지분 투자이지만, 벤처기업의 전략수립, 핵심인력 채용, 자금 조달 등 벤처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 행사
- 통상 일회성 자금 공급이 아닌, 벤처기술 상용화 단계에 맞춰 수차례로 집행

Buyout

- 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여, 기업경영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 기업가치 제고 후 상장(IPO),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타 펀드로의 매각을 통해 투자 자금 회수
-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 및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차입하며, 이를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라고 부름

Growth

- 신생기업이 아닌,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검증된 기업의 한 단계 도약(해외 진출, 신제품 투자, 기업 인수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
- 주로 신주 발행이나, 메자닌 증권 등에 대한 투자 형태로 이루어짐
- VC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의미 있는 소수지분(Significant minority)으로 참여하지만,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여 중요 사안에 대한 여러가지 자문 역할 수행

Mezzanine

- 메자닌캐피탈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단계의 성격을 지닌 자금
- 주로 고수익 채권(High Yield Debt)이나 후순위 채권 등의 형태로 투자. 후순위채는 상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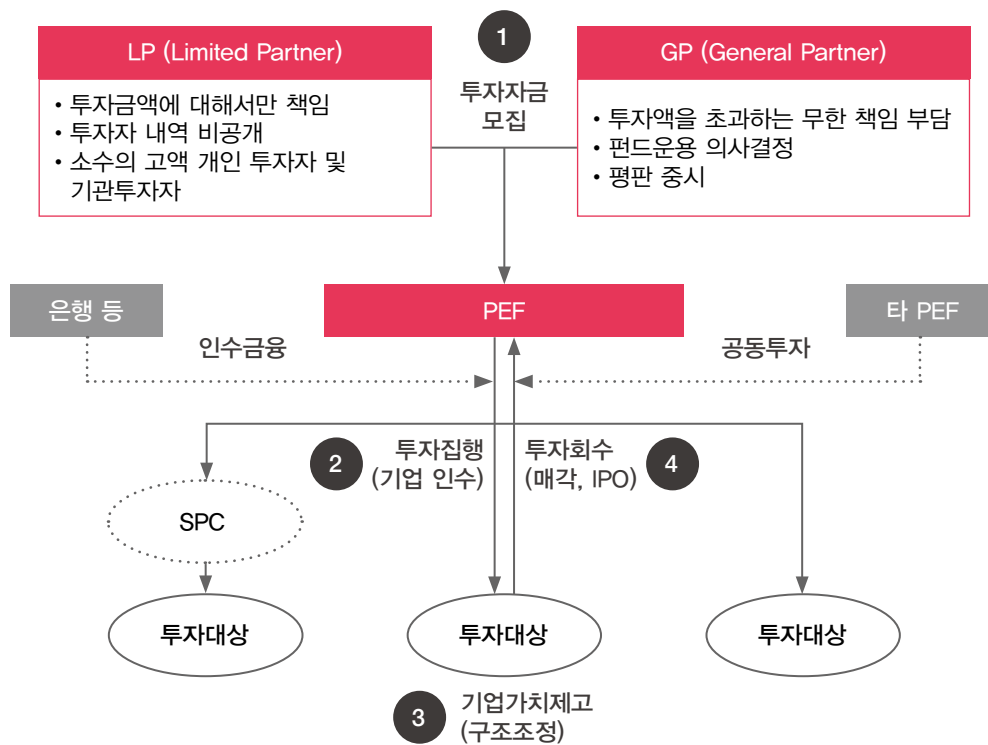
부실채권 (벌처펀드)

- 부도, 법정관리 등 부실화된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
-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 구조조정 과정을 장악하여 기업 Turn-around에 주력
- 부실채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벌처펀드(Vulture fund)라고 하며, 경기침체나 특정 국가의 경제 및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 활약하는 경향이 있음

투자구조: Buyout 펀드의 경우

- 해외의 경우,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외에 주식회사(Corporation) · 합명회사(Partnership)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한책임사원 모집 가능 · 이중과세 방지 등을 이유로 합자회사를 선호. 전체 PEF의 80%가 합자회사 형태
- 국내 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으로 구성
 - LP: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소수의 고액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GP: PEF를 설립하여 투자와 운용을 책임지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무한책임 부담. 통상 GP를 PE사로 명칭

PEF의 구조(Buyout 펀드)



- 1 투자자금 모집: 투자자(LP)와 출자약정 체결, GP도 일부 출자하여 PEF 설립
- 2 투자집행: 투자대상 선정하여 기업인수 (경우에 따라 차입, 공동투자)
- 3 기업가치제고: 구조조정 · 경영혁신 통한 경영 효율화, 현금흐름 위주의 경영
- 4 투자회수: 매각 · 상장을 통해 이익실현하여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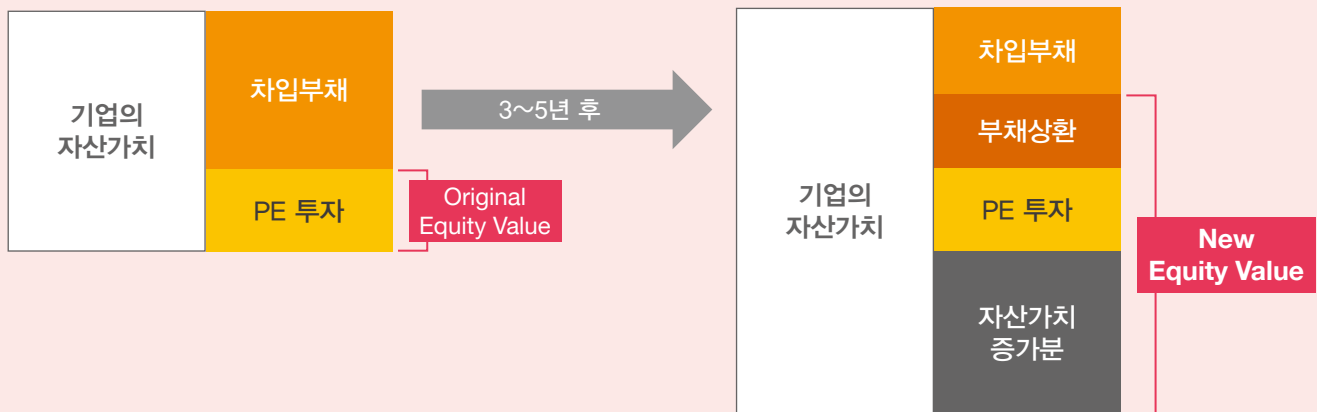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Focus Buyout: 구조와 역사

- PE를 대표하는 Buyout은, 기업 경영권 인수 후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 후 IPO, 매각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전략
- '22.6월 기준 Buyout 펀드의 운용자산(AUM)은 3.3조 달러로 전체 사모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PE 내에서는 43% 차지
- Buyout 펀드들은 통상적으로 차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성공으로 인한 Leverage 효과를 노리며, 이를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이하 LBO)라고 지칭

PE의 Value Creation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 Buyout 펀드는 1960년 대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70년부터 고속 성장
 - 1970~80년 대: Carlyle, Blackstone 등 대형 PE 사가 다수 설립되며, 인수자금에서 차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85~90%로 매우 높았던 시기. 1989년 정크본드 시장 붕괴와 함께 LBO 시장 열기가 가라앉음
 - 1990년 대: LBO 전략으로 인수한 기업들의 부도율이 치솟으며, PEF들은 기존 투자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주력. 신규 기업 인수 시 차입금 비중은 20~40% 수준으로 감소
 - 2000~2007년: 바이아웃의 황금기. 경기회복과 이자율 하락으로 LBO 투자 최적기. 바이아웃의 대중적 인지도 향상으로 Blackstone과 KKR이 주식시장에 상장
 - 2008~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사모시장축소. PE 자체적 구조조정 진행
 - 2013년~ 현재: 글로벌 저금리 기조로 인해 바이아웃 투자 증가. 사상 최대의 자금 유치(Fundraising) 및 투자진행



글로벌 주요 Buyout PE사

no	바이아웃 PE사	설립연도	국가	AUM ¹⁾
1	Bain Capital	1984	미국	\$165B
2	KKR & Co	1976	미국	\$165B
3	Carlyle Group	1987	미국	\$163B
4	Blackstone Group	1985	미국	\$131B
5	Vista Equity Partners	2000	미국	\$96B
6	Silver Lake Partners	1999	미국	\$92B
7	Apollo Management	1990	미국	\$92B
8	Insight Partners	1995	미국	\$90B
9	Advent International	1984	미국	\$89B
10	CVC Capital Partners	1981	프랑스	\$85B
11	General Atlantic	1980	미국	\$85B
12	Warburg Pincus	1966	미국	\$83B
13	Hellman&Friedman	1984	미국	\$80B
14	Permira Advisers	1985	영국	\$77B
15	Leonard Green & Partners	1989	미국	\$70B
16	Goldman Sachs Private Equity	1986	미국	\$59B
17	Clearlake Capital Group	2006	미국	\$59B
18	Clayton, Dubilier & Rice	1978	미국	\$57B
19	TPG	1992	미국	\$57B
20	Hg	2000	영국	\$55B

Source: 기사 종합, 각 사 홈페이지

1) 2022년 수치를 사용하였으나, 세부 시점은 회사별로 소폭 상이 (연말, 반기말, 특정 월말 등)



II.

글로벌 PE 시장



본 장에서 사용된 글로벌 데이터는 Mckinsey&Company에서 발간한 'Private markets turn down the volume,2023' 및 Bain&Company의 'Global Private Equity Report, 2023', 'Asia-Pacific Private Equity Report, 202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사모시장: 운용자산(AUM)

- 글로벌 사모시장의 운용자산(AUM: Assets under Management)규모는 11.7조 달러('22.6월 기준)로, '17년 이후 연평균 18% 성장하며 고성장 지속
- 투자 대상별로는 PE가 7.6조 달러로 전체 사모시장(Private Market)의 66%를 차지. 이 외에는 실물자산(부동산/ 인프라/ 원자재)이 23%, 사모사채가 11%의 비중 기록
- 운용자산을 지역별로는 살펴보면 북미지역이 6.3조 달러로, 전체의 54%를 차지. 아시아는 2.5조 달러, 유럽 2.3조 달러로, 전체 시장 내 각각 22%, 20%의 비중 차지

사모시장 운용자산(AUM) 현황('22.06 기준)

(단위: 십억 달러, %)

AUM 금액

구분	Buyout	Venture Capital	Growth	기타	Private debt	부동산	인프라 & 원자재	합계
북미	2,016	1,068	494	388	829	854	640	6,289
유럽	849	201	109	57	362	368	394	2,340
아시아	344	1,201	525	71	91	177	118	2,527
기타 국가	80	109	91	19	51	62	122	534
합계	3,289	2,579	1,219	535	1,333	1,461	1,274	11,690

Private Equity: 7.6조 달러

Real Assets: 2.7조 달러

AUM 비중

구분	Buyout	Venture Capital	Growth	기타	Private debt	부동산	인프라 & 원자재	합계
북미	17%	9%	4%	3%	7%	7%	5%	54%
유럽	7%	2%	1%	0%	3%	3%	3%	20%
아시아	3%	10%	4%	1%	1%	2%	1%	22%
기타 국가	1%	1%	1%	0%	0%	1%	1%	5%
합계	28%	22%	10%	5%	11%	12%	11%	100%

Private Equity: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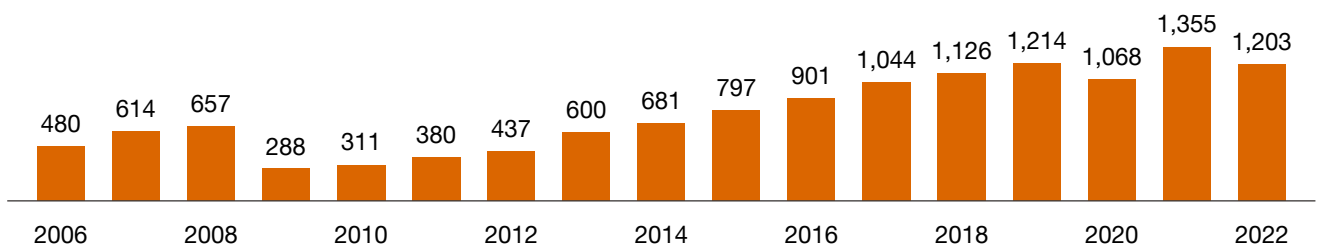
Real Assets: 23%

글로벌 사모시장: 자금모집(Fundraising)

- 자금모집(Fundraising)현황을 살펴보면 '22년은 1.2조 달러가 모집(YoY -11.4%) '21년은 저금리와 증시호황을 바탕으로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던 반면, '22년에는 금리 인상, 자산시장 냉각, 매크로 불확실성 등이 더해지며 투자심리가 다소 저하됨
- 다만,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22년 자금 모집금액은 팬데믹 이전인 '19년 수준 금액으로, 역대 3위의 규모
- 지역별로는 북미가 전년대비 유일하게 자금모집 금액이 증가한 지역(YoY +2%), 북미는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 모집자금의 67%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22년 7,990억 달러 모집
- 투자자산 종류별로는 인프라&천연자원과 사모사채 부문으로는 투자자금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각각 +7%, +2% 증가. 이에 반해 부동산과 PE는 전년대비 -23%, -15% 감소. 특히 북미지역에서 인프라&천연자원 투자관련 자금모집이 증가했는데, 미-중 무역분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COVID-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이슈, 미국 IRA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사모펀드 자금모집(Fundraising) 현황 - 연도별

(단위: 십억 달러)



사모펀드 자금모집(Fundraising) 현황 - 투자 분야별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Private markets	Asset class				
		PE	부동산	사모사채	인프라&천연자원	
북미	금액	799	444	113	147	94
	YoY 증감률	2%	-2%	-22%	11%	82%
유럽	금액	230	93	25	58	53
	YoY 증감률	-28%	-32%	-39%	-10%	-31%
아시아	금액	118	74	25	11	8
	YoY 증감률	-39%	-49%	-1%	-25%	1%
기타 국가	금액	57	43	3	7	3
	YoY 증감률	-9%	13%	-40%	8%	-72%
글로벌 합계	금액	1,203	655	166	224	158
	YoY 증감률	-11%	-15%	-23%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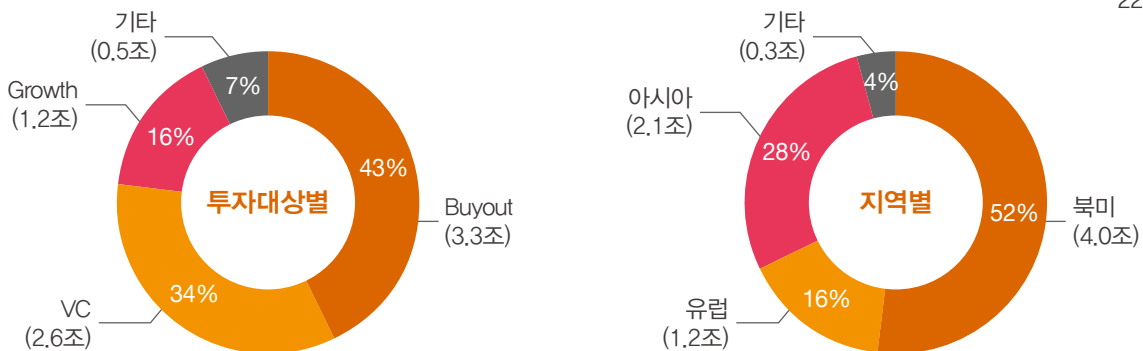
글로벌 PE: 운용자산(AUM)

- 글로벌 PE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7.6조 달러('22.6월 기준)이며, '17년부터 연평균 22% 성장
 - Buyout은 3.3조 달러로, 전체 PE 내 43%를 차지
 - 벤처캐피탈(VC)은 2.6조 달러. 신생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전체 PE에서 VC가 차지하는 비중 확대 ('17년 21% → '22.6월 34%)
 - Growth 펀드는 1.2조 달러로, PE 내 16% 비중
- 지역별로는 북미가 4.0조 달러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2.1조 달러, 유럽 1.2조 달러로 각각 전체의 28%, 16%를 차지
 - 아시아는 '17년 이후 신규 모집자금(Fundraising)이 급감했으나, 기존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AUM 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지역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북미와 유럽은 Buyout이 높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는 VC 투자비중이 높고, Buyout에 대한 비중은 16% 수준으로 미미

글로벌 PE 운용자산(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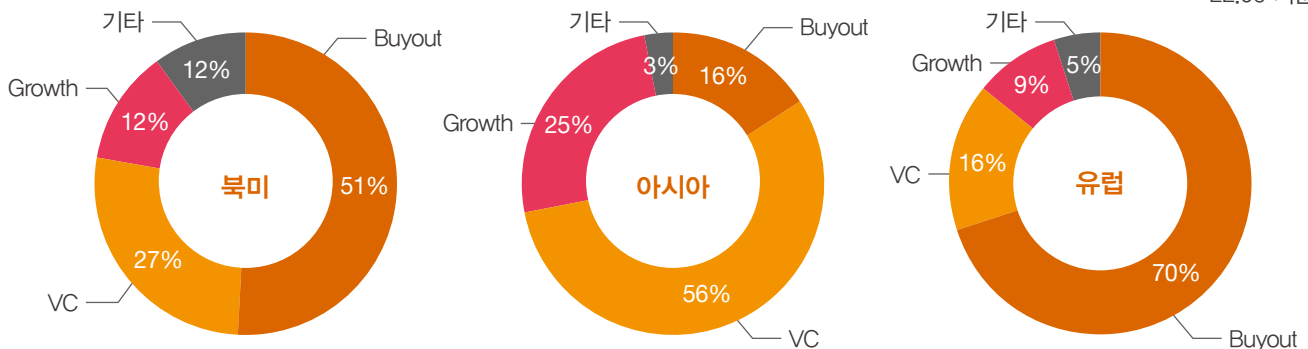
(단위: 달러)

'22.06 기준



각 지역별 PE의 투자대상

'22.0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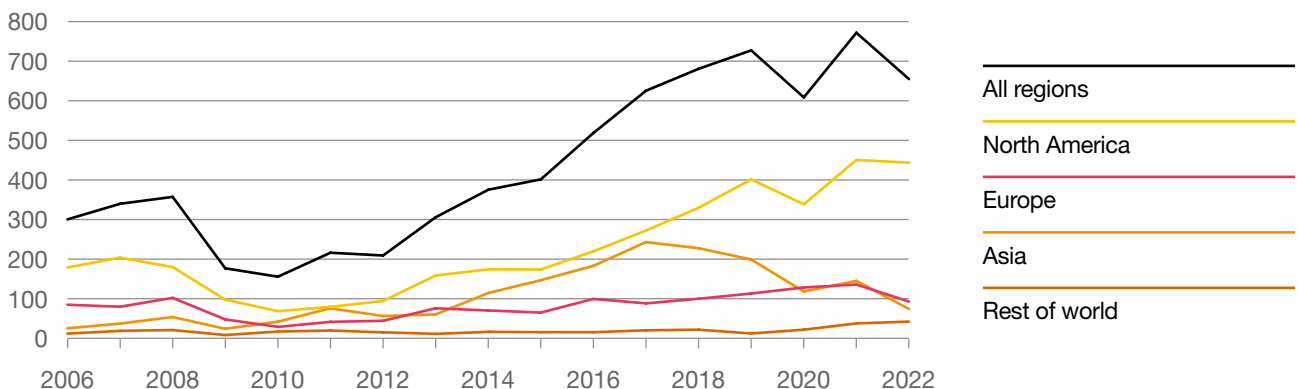


글로벌 PE: 자금모집(Fundraising)

- '22년 글로벌 PE의 자금모집 규모는 6,550억 달러로, 전년대비 15% 감소
- 세부 상품별로는 PE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Buyout의 모집금액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YoY -18%), Growth Equity와 VC는 각각 -17%, -11% 감소
-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자금모집 감소가 나타났으며, 북미(YoY -2%), 유럽(-32%), 아시아(-49%) 순
 -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강달러를 바탕으로 북미 지역은 '21년과 유사한 규모의 자금 모집
 - 아시아는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740억 달러의 자금 모집. 5년 연속 모집금액 감소하며, '13년 수준으로 회귀. 아시아 지역 모집금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PE 투자 감소
 - * 중국 자금 규모: '17년 2,080억 달러로, 아시아 자금의 85% 이상 차지
 - '22년 340억 달러로, 5년 전 대비 84% 감소. 아시아 자금 내 46% 차지
- 모집자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미집행 약정금(Dry Powder)은 역대 최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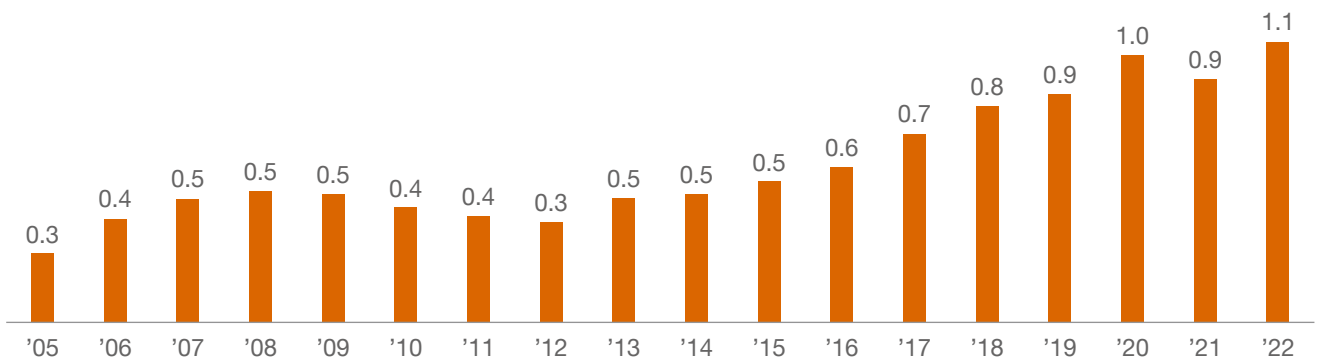
글로벌 PE 자금모집(Fundraising)

Global private equity fundraising by region, \$ billion



미집행 약정금(Dry Powder) 추이 - Buyout 펀드 기준

(단위: 조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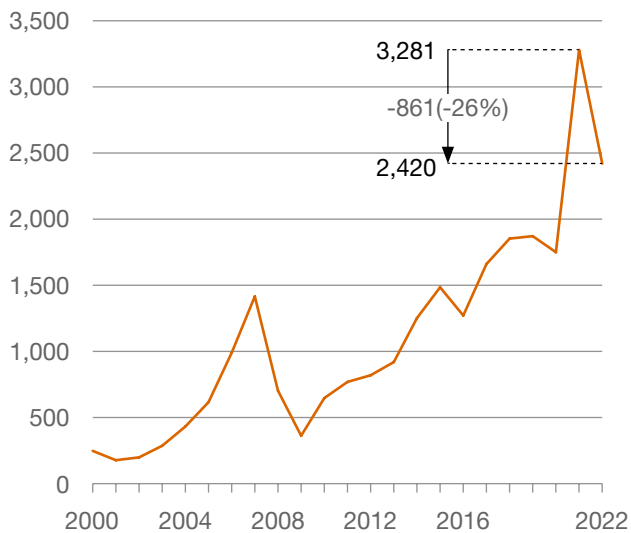
글로벌 PE: 투자(Investment)

- '22년 글로벌 PE의 투자집행 금액(Deal Volume)은 2.4조 달러, 건수(Deal Count)는 6만건. 조달금리 상승 및 매크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26%, -1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
- 유형별로는 Buyout이 전년대비 25% 감소한 1.7조 달러 기록. Growth펀드는 2,540억 달러 (YoY -18%), VC는 4,980억 달러(YoY -33%)
- 전 지역별로 투자금액이 감소한 가운데, 북미는 전년대비 27% 감소한 1.2조 달러, 유럽은 18% 감소한 8,260억 달러 기록. 아시아는 중국의 투자부진이 지속되며 전년대비 43% 감소한 2,280억 달러 투자 집행
- 아시아를 중심으로 투자금액 감소 요인 분석 시, Deal 건수 감소(-21%) 및 Deal 사이즈 감소(-25%)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 외에 환율 등도 영향(-4%)을 미침

글로벌 PE 투자집행 금액(Deal Volume) 및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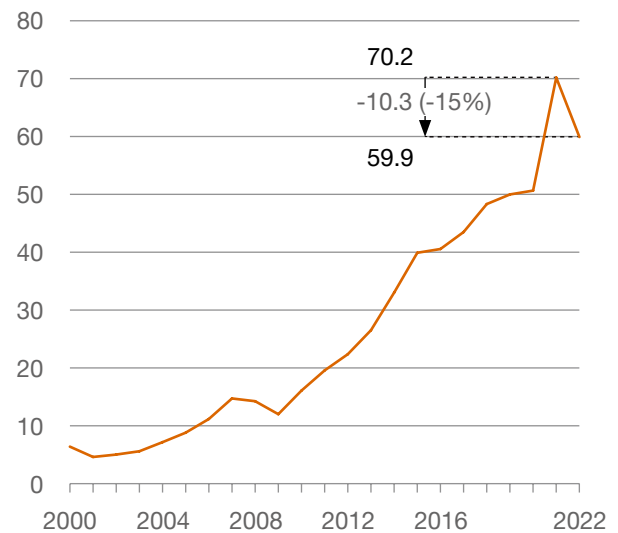
Global private equity deal volume

\$ b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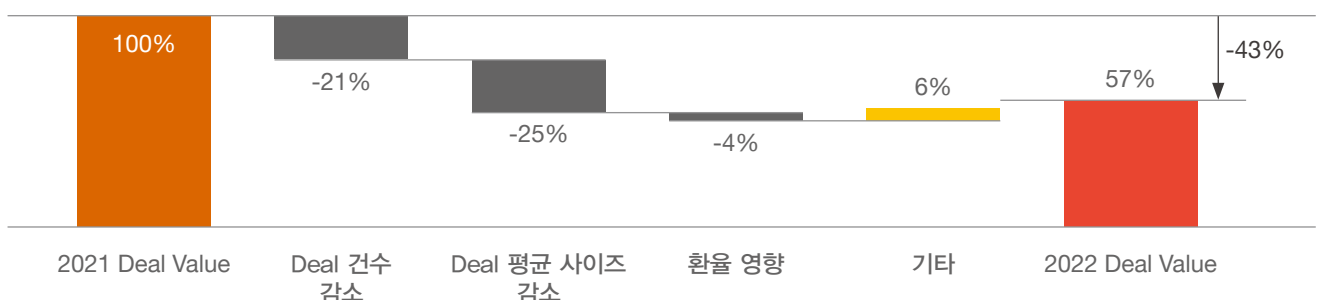


Global private equity deal count

Number of deals, thous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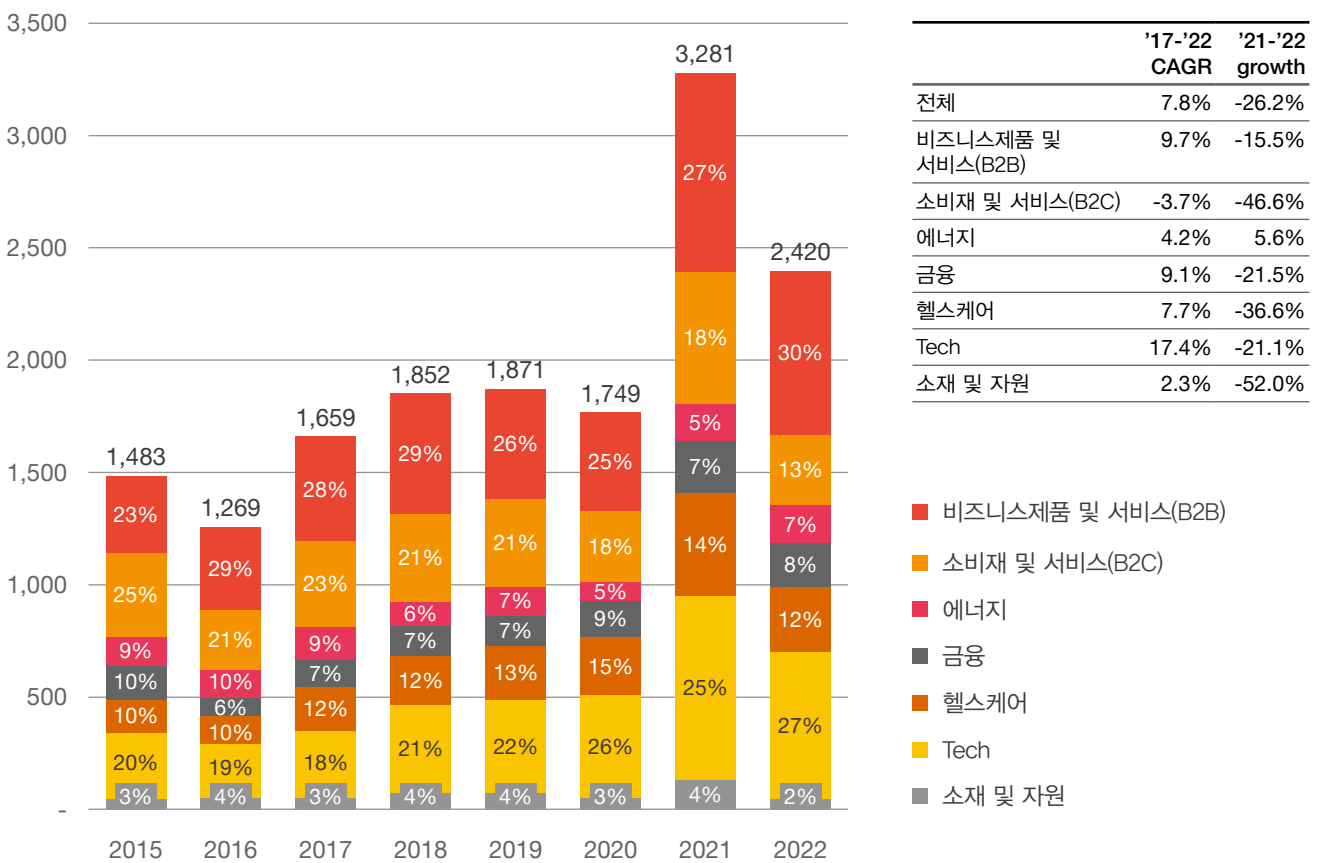
투자집행 금액(Deal Volume) 감소 원인 분석 - 아시아 기준



- '22년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전년대비 투자금액 감소
 - 에너지 부문은 원자재가 상승에 힘입어 '20년 이후 투자금액 지속 증가
 - 투자금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섹터는 소비재(YoY -47%)와 소재 및 자원(YoY -52%)
- '17년 이후 5개년 투자동향 고려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섹터는 Tech(CAGR +17%), 비즈니스 제품 및 서비스(CAGR+10%), 금융(CAGR+9%) 順.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IT, 핀테크, 클라우드 등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짐

글로벌 PE 투자집행 금액(Deal Volume) 및 건수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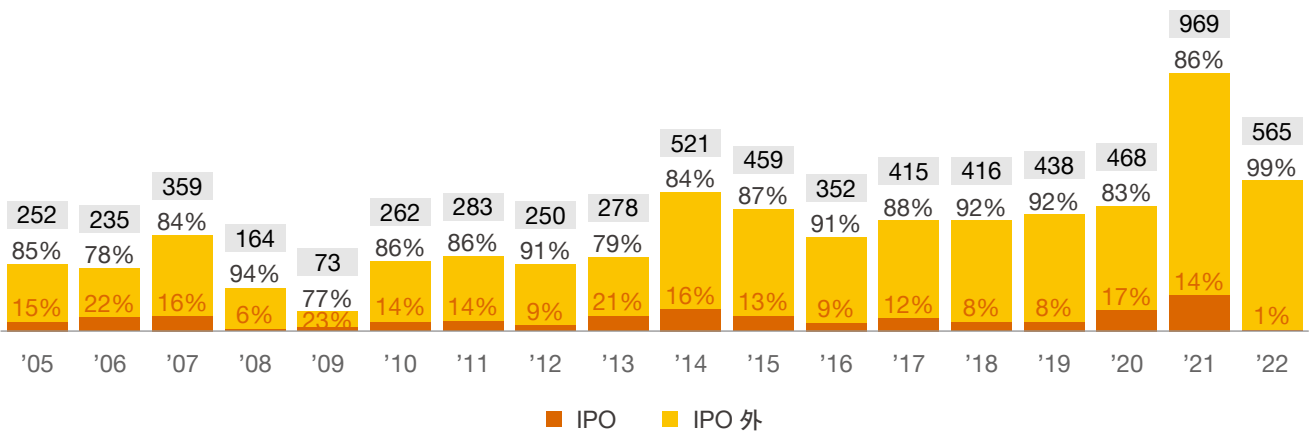


글로벌 PE: 투자회수(Exit) & 수익률(Performance)

- 유동성이 제약된 환경에서 Buyer 모색이 어려워지며, PE의 보유자산 Exit이 급격히 감소
 - 유형별로는 Buyout은 5,650억 달러(YoY -42%), Growth 펀드는 3,120억(YoY -64%) Exit 실행
 - Exit 방식은 '22년 주식시장 침체와 함께 IPO가 급감한 반면,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주요 매수자로 등극
- 수익률(Performance)를 살펴보면
 - '22년은 자산시장의 전방위적 하락(ex. 나스닥 지수-32%)에도 불구하고, PE는 -9%로 선방. 특히 Buyout은 -6%로 Growth(-14.7%) 및 VC(-14.9%) 대비 양호한 수준
 - 장기 수익률을 살펴보면, PEF의 연평균 IRR은 20.1%(Median값 기준, 15년 평균)이며, 이는 전체 사모시장 내에서도 우수한 성과. PEF 내에서는 VC가 23.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Buyout 펀드 19.4%, Growth 12.8%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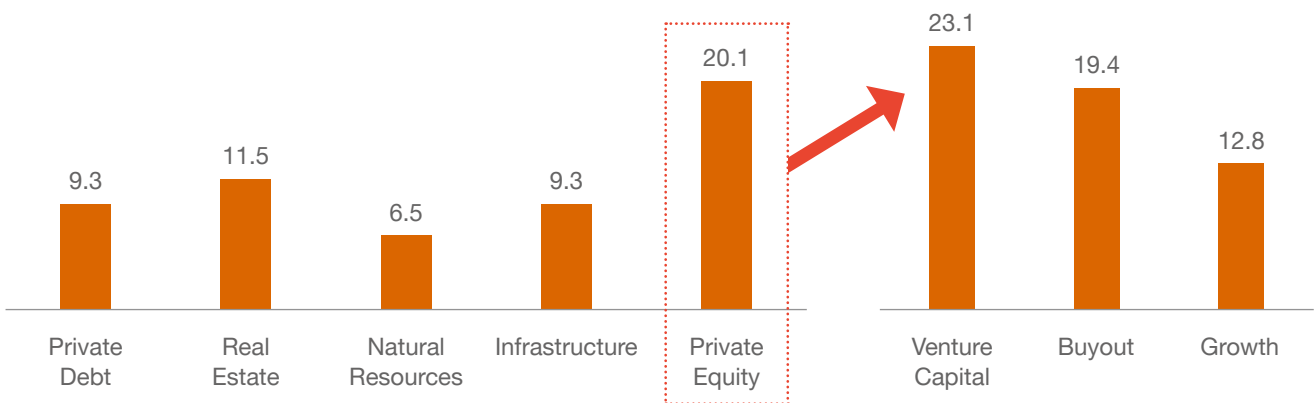
글로벌 PE의 투자회수(Exit) - Buyout 펀드 기준

(단위: 십억 달러)



글로벌 PE의 장기 수익률(Performance): 15년 평균 IRR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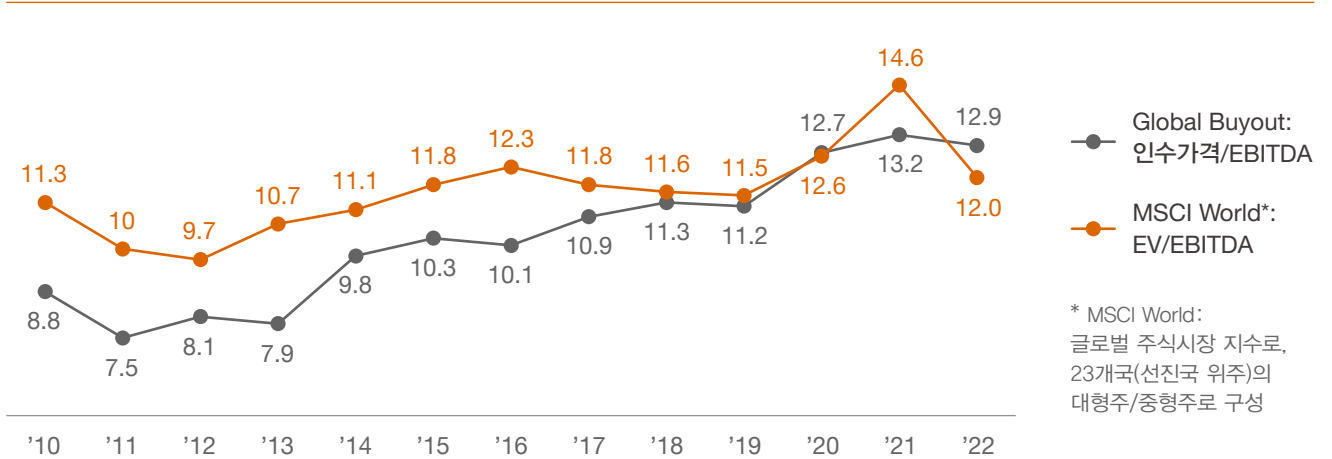
1) 2009~19년 펀드의 IRR 평균치 중 Median 값 ('22년 9월 말 기준)

글로벌 PE: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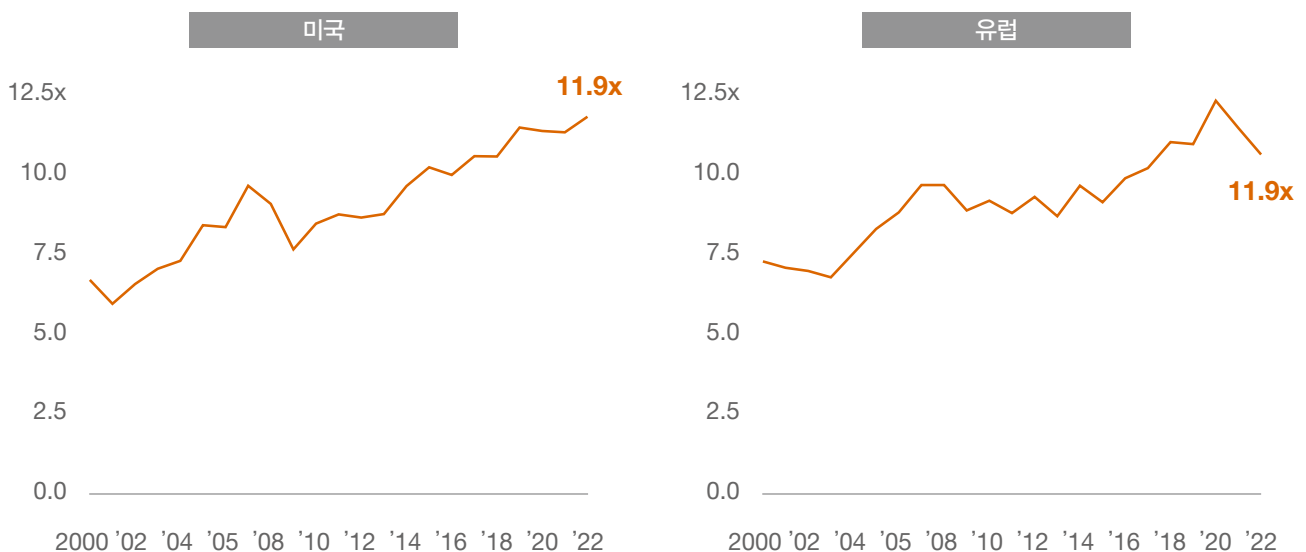
- '10년부터 '21년까지 PE의 Valuation이 꾸준히 높아졌으나, '22년에는 전반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Multiple 하락
 - EBITDA 대비 Multiple: '10년 8.8x → '21년 13.2x → '22년 12.9x (Buyout펀드, 인수가격 기준)
 - '22년은 경기침체 우려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Multiple이 감소하였으나, 동 기간 중 글로벌 주식시장의 Valuation 감소폭('21년 14.6x → '22년 12.0x)과 비교시 양호한 수준. 이는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모(Public)시장 대비, 사모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PE의 Valuation이 감소하였으나, 미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등의 우호적 환경 속에서, 미국 지역 자금모집 및 투자가 여전히 건조한 현황이 Valuation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

글로벌 PE Valuation(Buyout 펀드, 인수 초기 Multiple 기준)

(단위: 배)



글로벌 PE Valuation - Buyout 펀드(지역별, 기업 인수 초기 Multiple 기준)





III.

한국의 PE 시장 분석



한국의 사모펀드: 시장의 이해

- 국내에서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총 수가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을 의미. 운용목적에 따라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 가능
- 국내 사모자본시장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 1998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 동일 종목에 대한 10% 투자제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가 면제된 일임사모펀드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채권형 자금운용으로 활용
 - 2004년에는 기업의 경영권 참여 · 구조조정 등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도입
 - 이후 2011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을 위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도입
 - 2015년에는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일원화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제도¹⁾ 도입
 - 2021년에는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운용규제 일원화를 목적으로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단행

사모펀드 제도 개편 경과



Source: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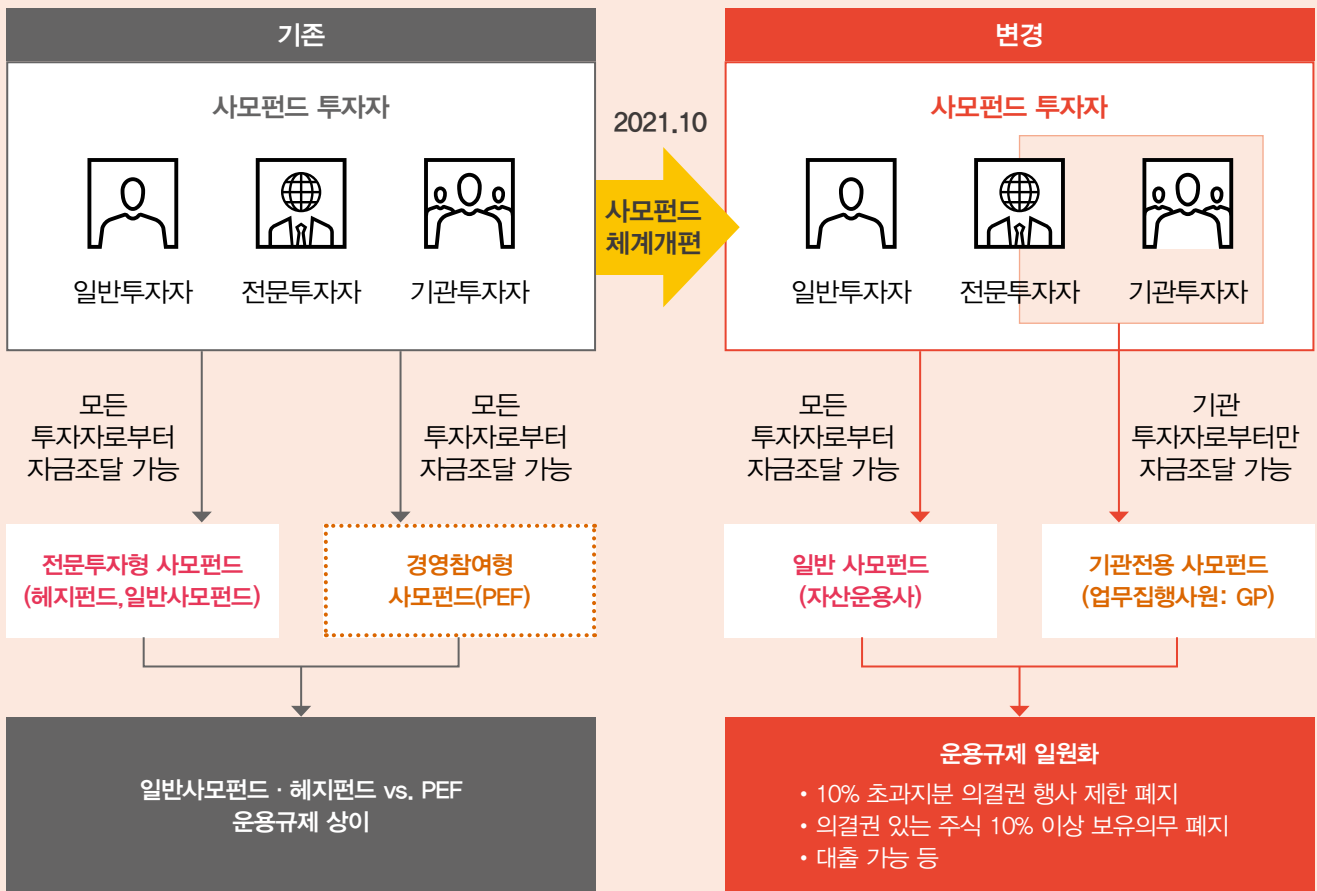
1) 20억 이상 자기자본, 3인 이상 전문인력, 물적설비 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영위가능 하도록 진입장벽 대폭 완화



Focus 국내 사모펀드 체계 개편 ('21.10)

- '21년까지 국내에서는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로 나누었음.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발생 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모험자금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목적을 위해, '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 개정된 기준에서는,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기존 사모펀드 체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차이를 없애면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 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금융회사, 연기금, 특수법인 등)로 구성된 펀드이며 ② 일반 사모펀드는 기관전용 이외의 사모펀드를 의미
- 기존에는 투자 목적을 중심으로 사모펀드를 분리함에 따라 PEF가 명확히 구분되었으나, '21년 10월 이후에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서 PEF 분류에 다소 혼선이 발생. 그러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도 PEF를 '경영참여목적 펀드'로 구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투자 목적을 중심으로 PE 분석을 진행

사모펀드의 구분



Source: 금융위원회, 삼일PwC경영연구원

사모펀드 유형별 구분

	[2021년 10월 이전]		[2021년 10월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 일반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주체	전문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업무진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	일반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업무진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
운용 목적	경영참여 목적 외	경영참여 목적	모두 가능	
투자 목적	해당 없음	출자금 50% 이상 2년 내 경영참여목적 투자	투자목적 제한 폐지	
투자자 범위	① 전문투자자 ② 최소투자금액(3억원*)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		현행 유지 ① 전문투자자 ② 최소투자금액 이상 (3억원, 레버리지 200% 초과 5억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금융기관, 특수법인, 연기금,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
투자자 보호장치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표준화된 설명서 작성·교부의무 없음,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없음 등		① 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 보호 강화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 등)	현행 수준 유지
투자자수	49인 이하		투자자 수 100인 이하 (기관투자자는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	
차입	400% 이내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	10% 이내 (SPC는 30% 이내)	400% 이내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불가능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의결권 제한	10% 초과 주식보유분 의결권 행사 제한	해당 없음	의결권 제한 폐지	
지분 취득	해당 없음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지분취득 의무 폐지	
보유	해당 없음	취득 후 6개월 이상 보유	지분취득 의무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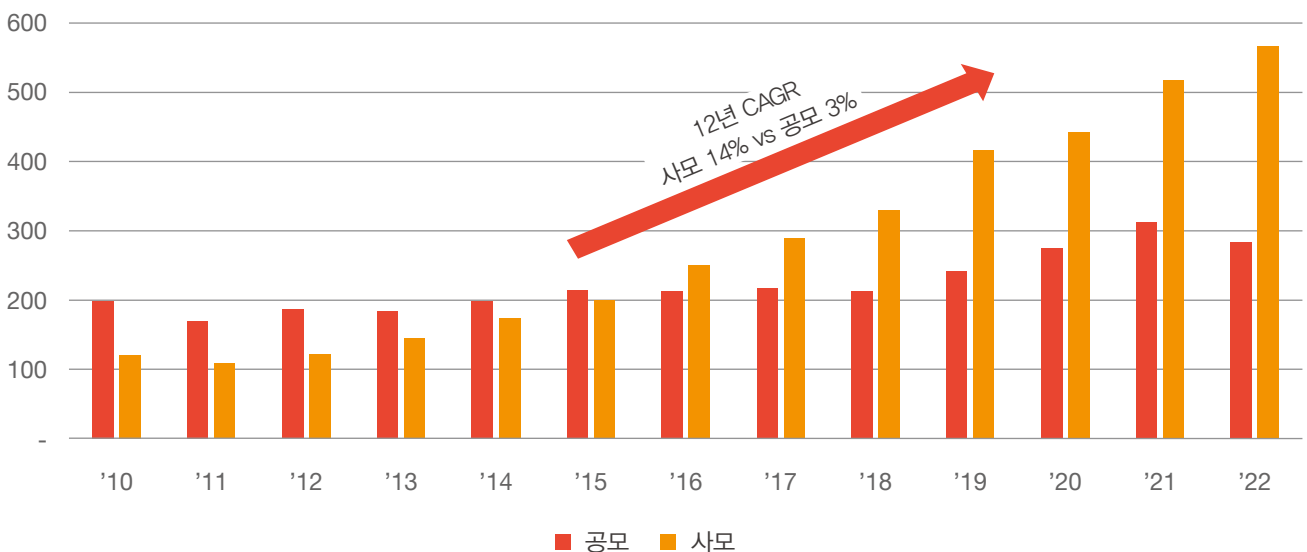
Source: 금융위원회

한국의 사모펀드: 시장 현황

- 국내 펀드시장의 규모는 '22년 순자산(NAV) 기준 849조 원으로, 공모 283조, 사모¹⁾ 566조 원으로 구성
- 지난 12여년 간 사모시장은 연평균 14% 성장하며, 공모시장 대비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
 - '15년 이후 사모자본 시장규모가 공모시장 규모를 추월
 - 전반적인 자산수익률 하락 추세에서 사모펀드가 상대적으로 공모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사모자본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22년 말 기준 투자자 구성을 살펴보면, 개인은 공모펀드, 금융기관/일반법인은 사모펀드 위주로 투자
 - 펀드 전체 투자자 구성: (개인) 11%, (금융기관) 69.5%, (일반법인) 19.5%
 - 공모펀드 투자자 구성: (개인) 33.4%, (금융기관) 55.8%, (일반법인) 10.8%
 - 사모펀드 투자자 구성: (개인) 3.2%, (금융기관) 74.3%, (일반법인) 22.5%

국내 사모 및 공모펀드 시장 규모: 자산운용사의 순자산총액(NAV) 기준

(단위: 조 원)



* 공모 및 일반 사모펀드 기준. 기관전용사모펀드(주로 PEF)는 제외한 수치
Source: 금융투자협회, 삼일PwC경영연구원

1) 일반 사모펀드 기준이며, 기관전용사모펀드(주로 PEF)는 제외한 수치

● 사모펀드의 유형별 순자산총액을 살펴보면 ('22년 말 기준)

- 증권형이 159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전체 사모펀드 내 28%)을 차지 하고 있으나, 낮은 성장추이(12개년 CAGR 6%)로 인해 사모시장 내 입지가 지속적으로 축소(사모시장 내 증권형 비중: '10년 66% → '15년 50% → '22년 28%)
 - 주식형은 '14년 이후 자산 성장 정체
 - 채권형은 연기금 등의 대규모 자금으로 인해, 단일 상품 중 가장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년 이후 부동산 및 특별자산이 채권을 추월
- 부동산형은 154조원으로 전체 사모시장의 27% 비중 차지. 지난 12년 간 연평균 23% 성장하며, 폭발적으로 자산 증가
- 특별자산은 134조 원으로 사모시장 내 24%의 비중, 자산 규모 3위의 입지 구축.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인프라나 금·유전 등 실물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형 펀드는 대체자산의 일환으로 인식되며 운용규모가 급증 (12개년 CAGR 22%)

사모펀드 유형별 순자산총액(NAV)

(단위: 조 원)

연도별	증권					단기금융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합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재간접						
'10	9	5	13	44	8	3	12	13	13	-	120
'11	8	5	12	36	3	2	11	16	15	-	108
'12	7	4	13	34	3	2	20	19	19	-	121
'13	8	4	15	44	4	3	19	23	23	-	144
'14	10	4	17	57	6	4	19	29	28	-	173
'15	12	3	12	67	6	8	18	35	36	2	200
'16	11	3	10	80	10	18	23	46	44	5	250
'17	14	4	7	73	14	25	27	59	54	12	289
'18	15	4	6	76	16	20	29	75	68	23	331
'19	15	5	5	84	22	32	30	97	90	36	416
'20	19	5	5	85	33	24	25	110	104	34	443
'21	20	6	8	96	41	33	23	130	116	44	517
'22	16	6	6	85	45	58	17	154	134	45	566

* 공모 및 일반 사모펀드 기준. 기관전용사모펀드(주로 PEF)는 제외한 수치

Source: 금융투자협회,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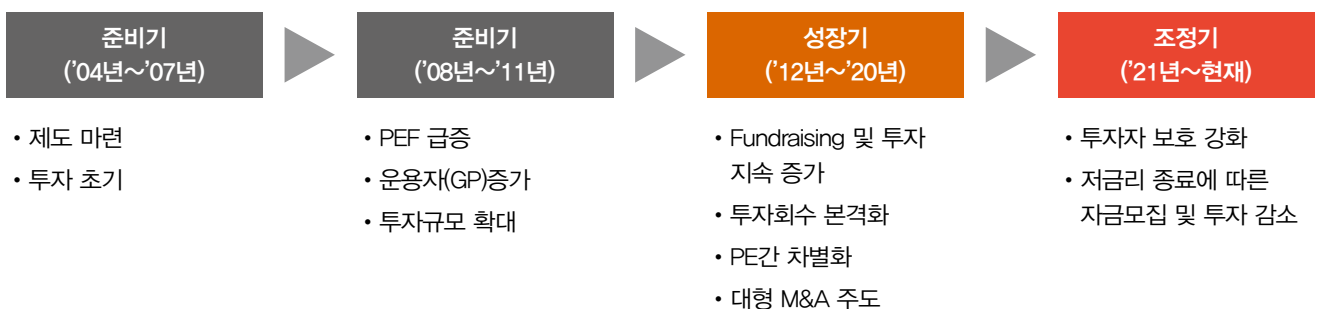
한국의 PE: 도입 배경 및 발전 단계

- 글로벌 PE(Buyout 기준)는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한데 반해, 한국PE는 20년 미만 업력을 보유
- 한국은 IMF 이후 국내 우량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인수되면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데 대한 반성으로, 국내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토종자본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04년 처음으로 PE 도입
- 한국의 PE는 해외의 바이아웃 펀드를 벤치마킹하여 형성. PE 육성을 통해 국내자본 축적과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
 -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
 -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국내자본의 대형화를 통한 외국계 펀드와의 경쟁력 제고
 - 기관투자가 등 장기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국내 PE는 준비기('04년-'07년) 및 도약기('08년-'11년)를 거쳐, '12년부터 투자회수 본격화, PE간 운용능력 차별화 등이 진행되는 성장기에 진입. '21년 이후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19년) 후속조치로 투자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사모펀드 체계 개편이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저금리 기조 종료에 따라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기에 진입

국내 PEF 주요 변화



국내 PE 발전 단계



한국의 PE: 시장 규모

- '22년 말 기준 PEF는 총 1,066개, 약정금액 123조 원, 투자이행액 96조 원
 - 펀드 수: ('15년) 316개 → ('22년) 1,066개로 3.4배 증가, 7개년 CAGR 19%
 - 약정액: ('15년) 58조 원 → ('22년) 123조 원으로 2.1배 증가, 7개년 CAGR 11%
 - 이행액: ('15년) 38조 원 → ('22년) 96조 원으로 2.5배 증가, 7개년 CAGR 14%, 8개년 평균 이행비율 73%
- 유형별로는 일반 PEF가 882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벤처 113개(11%), 재무안정펀드 69개(6%) 順
 -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는 '16년 12월 도입 허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 (도입이후 CAGR 66%)

[참고]

-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부실징후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운용
-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운용

국내 PEF 시장 규모

(단위: 개, 조 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316	383	444	580	721	847	1041	1066
일반	277	331	378	487	597	686	844	882
재무안정	31	45	51	53	63	71	76	69
창업벤처			9	35	56	87	118	113
기타	8	7	6	5	5	3	3	2
약정액 ①	58.5	62.2	62.7	74.4	84.3	96.7	115.7	123.3
이행액 ②	38.4	43.6	45.5	55.5	61.7	70.2	87.3	95.8
이행비율(=②/①)	65.6%	70.1%	72.6%	74.6%	73.2%	72.6%	75.5%	77.7%
미집행약정액 (Dry Powder) ¹⁾	20.1	18.6	17.2	18.9	22.6	26.5	28.5	28.2

Source: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1)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및 Non-PEF) 수치이나, Non-PEF의 영향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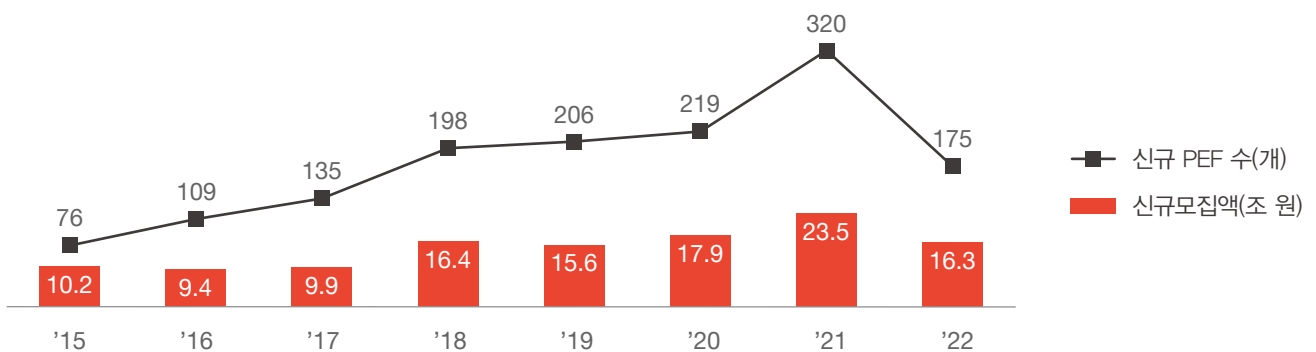
* 非경영참여형 기관전용 펀드(Non-PEF) 주요 수치

- 펀드 개수: '21년 9개 → '22년 32개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 내 3% 비중)
- 약정액: '21년 0.4조원 → '22년 2.0조원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 내 1.6% 비중)
- 이행액: '21년 0.1조원 → '22년 1.3조원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 내 1.3% 비중)

한국의 PE: 자금모집(Fundraising)

- PE의 신규 자금모집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18년 이후 매년 15조 원 이상 모집. 특히 '21년은 유례없는 저금리와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인해 PE 도입 이후 최고 금액인 23.5조 원을 모집했으나, '22년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금리상승 영향으로 자금모집 위축되며 16.3조 원 모집
- '22년 기준 신규 PEF는 175개로, 규모별로 구분하면
 - 대형(출자약정액 기준 3천억 원 이상)펀드가 11개로, 전체 신규펀드의 6.3% 차지
 - 중형(출자약정액 기준 1천억~3천억) 펀드는 41개로, 전체 신규 펀드의 23.4%
 - 소형(출자약정액 기준 1천억 미만)펀드는 123개로, 전체 신규펀드의 70.3%
- 소규모 전업 GP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1천억 미만의 소형 프로젝트 펀드가 크게 증가
 - 전체 PEF 내 소형펀드의 비중은 '15년 60% → '22년 70%로 지속 증가
 - '15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20억 이상 자기자본, 3인 이상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면서, GP 설립이 용이해진 결과로 소형 PEF 급격히 증가

국내 PE 자금모집(Fundraising): 신설 PEF 수 및 모집액¹⁾



신규 PEF 규모별 현황¹⁾

(단위: 개)

구분	출자약정액	'15	'16	'17	'18	'19	'20	'21	'22
대형	3,000억 원 이상	8	7	5	13	8	12	17	11
중형	1,000~3,000억 원	22	22	22	33	36	37	48	41
소형	1,000억 원 미만	46	80	108	152	162	170	255	123
합계		76	109	135	198	206	219	320	175

Source: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1)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및 Non-PEF) 수치이나, Non-PEF의 영향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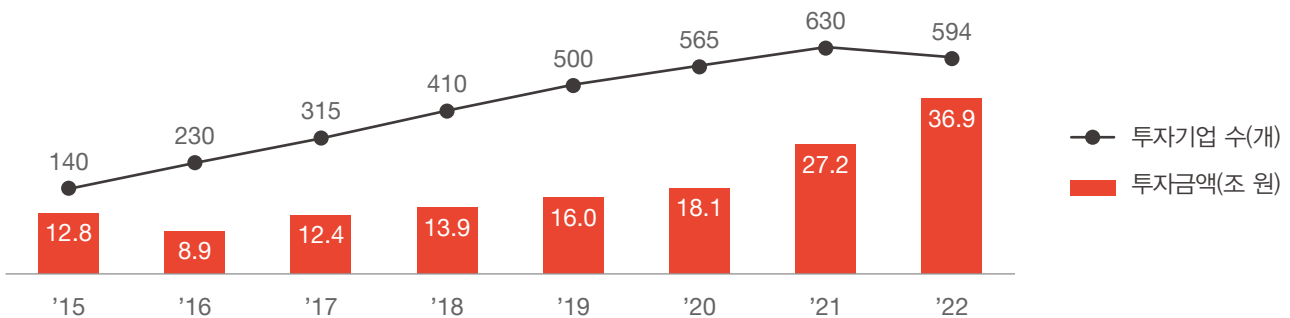
* 非경영참여형 기관전용 펀드(Non-PEF) 주요 수치

- 펀드 개수: '21년 9개 → '22년 32개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 내 3% 비중)
- 약정액: '21년 0.4조원 → '22년 2.0조원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 내 1.6% 비중)
- 이행액: '21년 0.1조원 → '22년 1.3조원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 내 1.3%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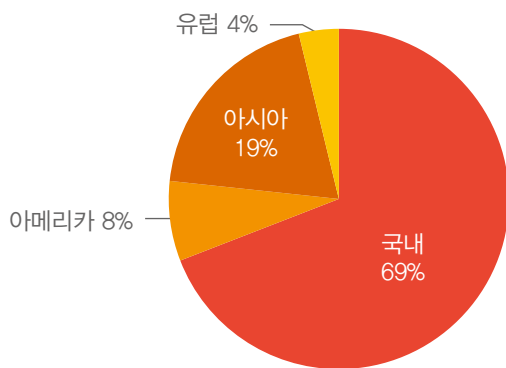
한국의 PE: 투자(Investment)

- '22년 중 PE는 국내외 594개 사에 대해 36.9조 원의 투자를 집행
 - '22년 PE의 신규 투자 규모는 36.9조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직전 5년 평균(17.5조 원) 대비 2배 수준 증가
 - 국내 M&A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
 - 해외 투자 금액 추이: '18년 1.3조 원(전체 투자금액 중 9%) → '20년 5.5조 원(30%) → '22년 11.4조 원(31%)
 - 지역별 집중도: 국내(69%), 아시아(19%), 아메리카(8%), 유럽(4%) 順
 - 업종별로는 제조업(43%), 정보통신업(15%), 금융·보험업(8%), 도소매(14%)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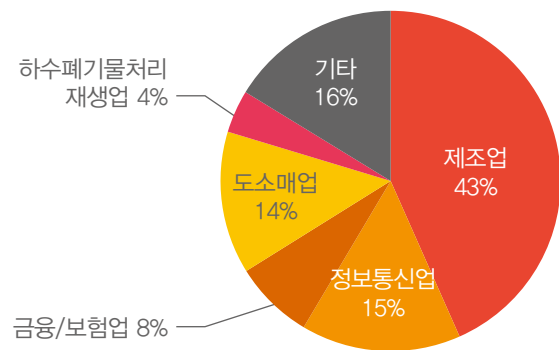
국내 PE 투자(Investment)¹⁾



지역별 투자 비중('22년 기준)¹⁾



업종별 투자 비중('22년 기준)¹⁾



Source: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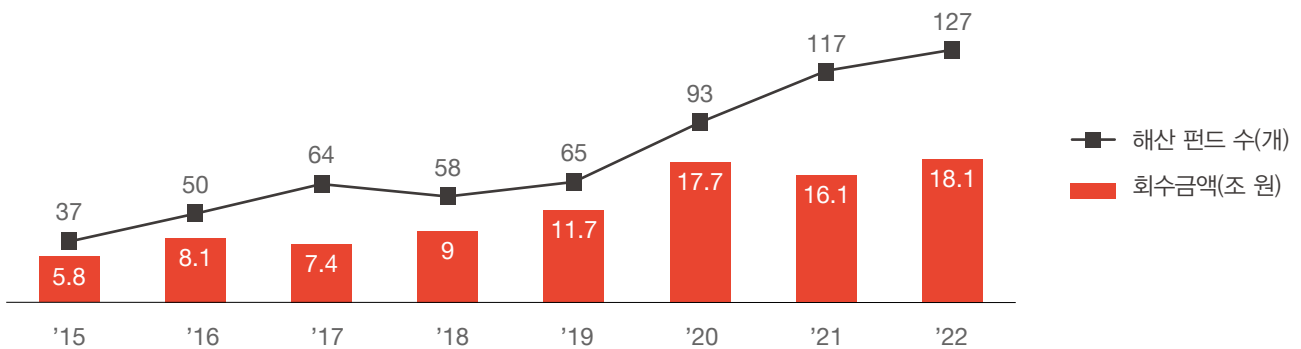
1)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및 Non-PEF) 수치이나, Non-PEF의 영향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비경영참여형 기관전용 사모펀드(Non-PEF)의 '22년 투자금액은 1.0조 원(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 내 2.7% 비중)

한국의 PE: 투자회수(Exit)

- PEF의 성장이 지속되고, 투자 이력이 누적됨에 따라, 투자회수 본격화
 - 해산 펀드 수: ('15년) 37개 → ('22년) 127개로 7개년 CAGR 19.3%
 - 회수금액: ('15년) 5.8조 원 → ('22년) 18.1조 원으로 7개년 CAGR 17.7%
 - '22년 회수금액은 18.1조 원으로, 직전 3년 평균(15.2조 원)을 상회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 이는 대규모 회수건(회수액 1조 원 이상)이 다수 발생한 데에 기인
 - 회수금액을 단계별로 구분 시, 배당 등 중간회수 5.4조 원(29.8%), 최종회수(IPO, 기업매각 등) 12.7조 원(70.2%)
 - 평균 존속기간: ('20년) 4.0년 → ('21년) 3.7년 → ('22년) 3.9년

국내 PE 투자회수(Exit)¹⁾



회수 단계별 구분('21년 기준)¹⁾

(단위: 조 원)

중간회수(5.4조원)			최종회수(12.7조원)		
배당	IPO(일부)	기타	매각(M&A)	IPO	기타
3	1	1.4	11.3	0.5	0.9

Source: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1)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및 Non-PEF) 수치이나, Non-PEF의 영향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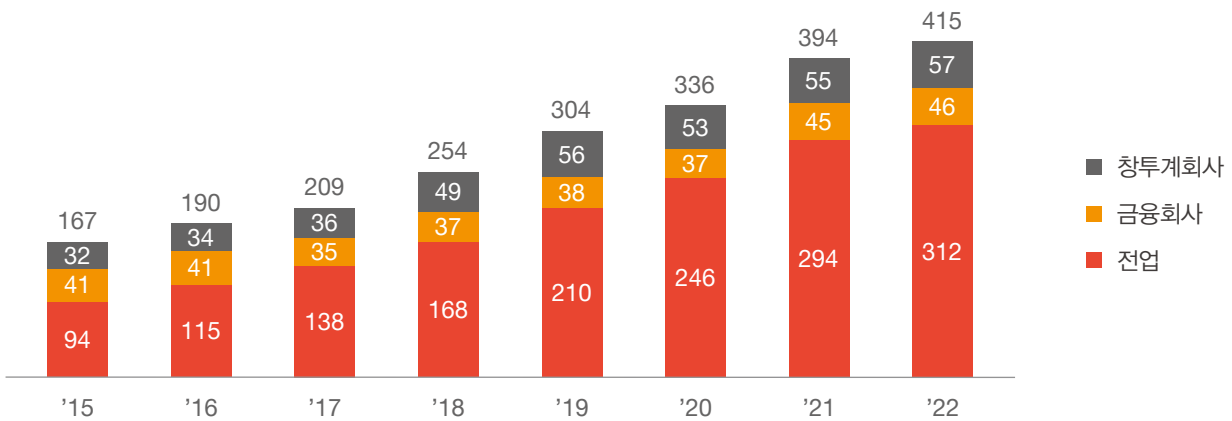
* 非경영참여형 기관전용 사모펀드(Non-PEF)의 '22년 투자금액은 0.1조 원(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 내 0.5% 비중)

한국의 PE: G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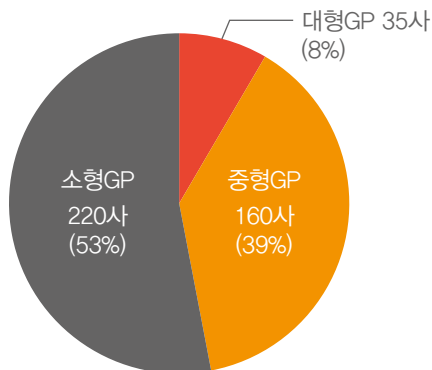
- PEF 성장과 함께, PEF를 운영하는 업무집행사원(이하 'GP') 지속 증가
 - 전체 GP: ('15년) 167개 → ('22년) 415개로 7개년 CAGR 13.9%
 - 전업 GP: ('15년) 94개 → ('22년) 312개로 7개년 CAGR 18.7%. 전체 GP 중 75%의 비중 차지
 - 금융회사 GP: ('15년) 41개 → ('22년) 46개로 큰 폭의 변동 없음.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신규 등록
 - GP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 대형GP 35사(전체 대비 8%), 중형GP 160사(39%), 소형 GP 220사(53%)로 구성
 - 35개의 대형GP로 전체 약정액의 61%가 집중되어 있으며, 소형 GP는 전체 약정액의 5% 수준을 점유
- * 출자약정액에 따라 대형사(1조 원 이상), 중형사(1천억 원~1조 원), 소형사(1천억 원 미만)로 구분

G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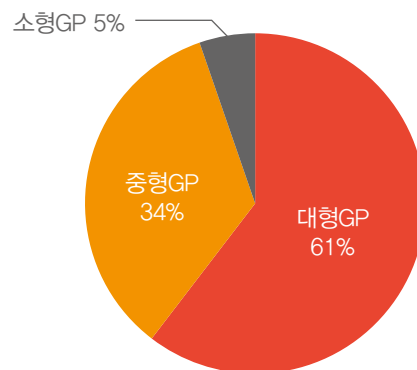
(단위: 사)



GP 규모별 분류('22년 기준)



GP 규모별 약정액 비중('22년 기준)



Source: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한국의 PE: 주요 GP

- 상위 20개 PE사(GP)가 전체 약정액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10개사의 점유율은 37% 수준
- 약정액 기준 한국 최대 PE사는 한앤컴퍼니로 '22년 약정액 11조 원(점유율 8%)이며, MKB파트너스(10.7조 원), IMM프라이빗에쿼티(5.5조 원) 順. IMM그룹을 통합 산정 시, IMM프라이빗에쿼티(5.5조 원), 인베스트먼트(5.2조 원), 크레딧앤솔루션(1.2조 원)으로 3사 합계 11.9조 원이며 국내 GP 내 1위

한국의 주요 PE사(GP 기준)

(단위:개, 조 원)

* '22년 약정액 기준 정렬

No	회사명	설립연도	펀드 개수			약정액		
			'20	'21	'22	'20	'21	'22
1	한앤컴퍼니	2010	16	16	17	8.1	8.8	11.0
2	MBK파트너스	2005	17	13	11	13.7	11.2	10.7
3	IMM프라이빗에쿼티	2006	21	24	24	5.5	6.0	5.5
4	IMM인베스트먼트	1999	21	23	21	3.6	5.3	5.2
5	스틱인베스트먼트	1999	9	11	12	3.2	4.3	4.4
6	연합자산관리(UAMCO)	2009	23	25	22	3.3	3.6	3.3
7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2010	10	12	15	2.0	2.2	3.0
8	한국산업은행	1954	10	8	9	2.5	2.8	3.0
9	SKS프라이빗에쿼티	2005	12	14	14	2.3	2.7	2.8
10	소프트뱅크벤처스	2000	3	5	5	0.1	0.4	2.4
11	맥쿼리자산운용	2000	4	4	5	1.7	2.2	2.4
12	JKL파트너스	2001	5	5	6	1.3	2.0	2.3
13	스톤브릿지캐피탈	2008	7	7	11	1.5	1.6	2.3
14	VIG파트너스	2005	15	18	19	1.8	2.1	2.2
15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2019	4	4	7	1.1	1.1	1.9
16	중소기업은행	1961	12	12	13	1.5	1.6	1.7
17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2012	8	12	11	0.6	1.7	1.7
18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2014	5	5	4	1.5	1.7	1.6
19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2012	4	4	7	1.0	1.0	1.5
20	E&F프라이빗에쿼티	2014	9	8	9	0.8	1.2	1.5

- 펀드수 및 약정액은 금감원 데이터 기준
- 펀드수의 경우 동일 펀드를 세분한 경우가 많아, 각 PE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ex) 금감원 발표치는 'MKB파트너스 3호', 'MKB파트너스 3호의 2' 등으로 세분

Source: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IV.

한국의 주요 PE사(GP)



한국의 주요 PE사

- 약정액 2조원 이상('21년 기준)의 GP¹⁾를 중심으로 분석 진행²⁾
- 투자 지역: PE의 투자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해외 투자 비중 증가 (과거³⁾ 16% → 현재 25%)
 - 현재 투자 중인 173개 기업 중, 한국 130개(전체 보유 기업 내 비중 75%), 베트남 9개(5%), 중국·일본 각각 7개(각 4%), 미국 6개(3%), 홍콩 4개(2%) 등으로 구성
 - 투자 후 Exit 한 기업은 159개로, 한국 133(전체 Exit 기업 내 비중 84%), 중국 7개(4%), 일본 6개(4%) 順
- 투자 분야
 - 현재 주요 투자 섹터는 SW 16건(9%), 레저 15건(9%), 산업재 15건(9%), 헬스케어 13건(8%)
 - Exit 포함 현재까지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은 산업재(38건)로, 전체 투자 이력의 11%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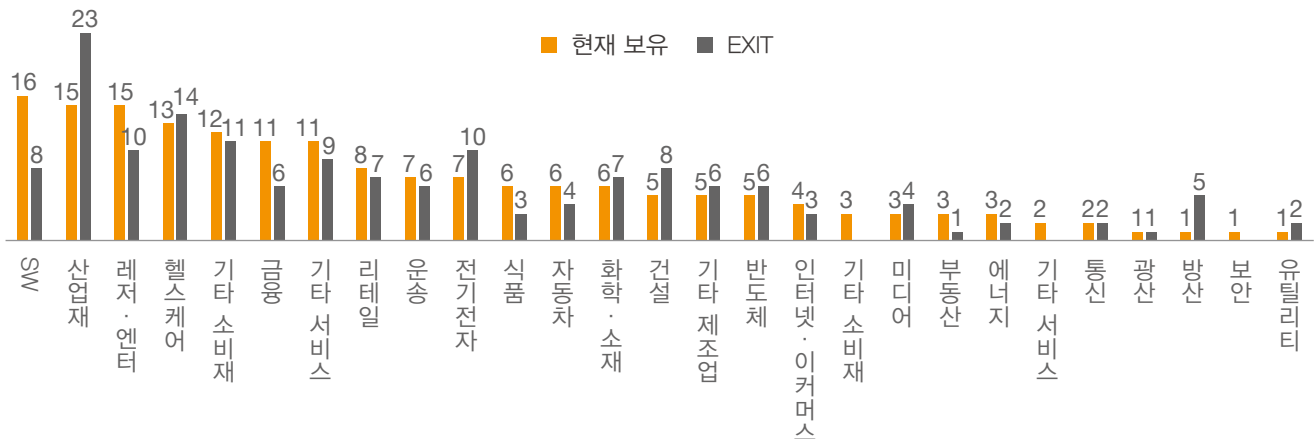
한국 주요 PE사의 투자 지역('23.4월 말 기준)

(단위: 개)



한국 주요 PE사의 투자 분야('23.4월 말 기준)

(단위: 개)



* Merger Market·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1) 총 9개사 대상: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프라이빗에쿼티,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SKS프라이빗에쿼티,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VIG파트너스, JKL파트너스
 2) 9개 PE는 전체 약정액의 30%를 점유
 3) 전체 Exit 기업 내 해외 비중

- 연도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재 및 산업재에 대한 투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되는 반면, IT 부문 투자는 미미. 글로벌PE의 투자동향(전체 투자 중 Tech 비중 25% 내외) 및 한국 경제 내 IT의 위상(상장사 영업이익 내 33% 차지, 3개년 평균) 고려시에도 Tech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상황

한국 주요 PE사의 투자 분야: 연도별X섹터별

(단위: 개)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에너지 · 소재	에너지				1	1		1						1				4
	유틸리티				1							1			1			3
	화학·소재·광산				1	1	2				2		1		2	1		10
건설	건설·부동산		2	1		2			3	2	1	1	1			1		14
소비재	리테일		1	2			1		2		3	2						11
	식품			1			1		1		1	1	3			1		9
	레저·엔터	1	1		1	1	1		1	3	3	5	1	1	2			21
	미디어	1					1			1		1				1		5
	헬스케어	1			1	2	1	1	1		2	1	1	1	4	1	2	19
	기타 소비재		1	2		1		1	2	2	6	1	1	1	2		1	21
	기타 서비스		1	1					1	5		4	4	1	1	1		19
금융	금융		1	1	1	1	1			1		2	4	1	1	1		15
산업재 · 운송 · 자동차	산업재·방산		2		1	1	1	2	3	2	2	3	4	2	1	2	1	27
	운송					1		1	3	2		1		1	1	2	1	13
	자동차	1				1	2	2			2				2			10
	기타 제조업	1							1	2	1	1				2		8
IT	반도체		1				1							1	2		1	6
	전기전자				1	1	3			1		1	1		3	1	1	13
	통신	1						1		1								3
	인터넷·이커머스							1				1	2		1			5
	SW			1				2	1			1	3	5	2	4		19
농업	농업				1													1
합계		6	10	9	9	13	15	12	19	22	23	27	26	15	25	18	7	256

* 9개 PE사가 인수한 332개 기업 중 인수시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256개 기업 대상

* Merger Market·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Appendix.1 주요 PE사 Portfolio 비교

투자지역: 현재 Portfolio('23.4월 말 기준)

(단위: 개)

	MBK 파트너스	한앤 컴퍼니	IMM 프라이빗 에쿼티	스틱 인베스트 먼트	산업은행	SKS 프라이빗 에쿼티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VIG 파트너스	JKL 파트너스	합계
한국	13	14	15	19	8	19	8	17	17	130
베트남				7		1	1			9
중국	5			2						7
일본	7									7
미국			1	1	2		1		1	6
홍콩	2			2						4
싱가포르				2						2
룩셈부르크				2						2
프랑스				1						1
터키			1							1
인도네시아				1						1
인도				1						1
말레이시아				1						1
대만				1						1
합계	27	14	17	40	10	20	10	17	18	173

투자지역: Exit('08년~'23.4월 말)

(단위: 개)

	MBK 파트너스	한앤 컴퍼니	IMM 프라이빗 에쿼티	스틱 인베스트 먼트	산업은행	SKS 프라이빗 에쿼티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VIG 파트너스	JKL 파트너스	합계
한국	6	9	20	33	11	17	5	15	17	133
중국	3	1	1	2						7
일본	6									6
홍콩	1				1				1	3
대만	2									2
미국				2						2
싱가포르	1				1					2
스페인			1							1
인도네시아				1						1
캐나다							1			1
프랑스										1
합계	19	10	22	38	13	17	6	15	18	159

* Merger Market·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투자섹터: 현재 Portfolio('23.4월 말 기준)

(단위: 개)

	MBK 파트너스	한앤 컴퍼니	IMM 프라이빗 에쿼티	스틱 인베스트 먼트	산업은행	SKS 프라이빗 에쿼티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VIG 파트너스	JKL 파트너스	합계
S/W	1		1	7	1	2	1	1	2	16
산업재				1	1	6	2		5	15
기타 소비재			1	3		4		2	2	12
금융	4		4	1	1				1	11
기타 서비스		2		4		1		3	1	11
레저·엔터	4	3	3	2				2	1	15
리테일	2	1	1		1	1		2		8
메디컬	5			1			2			8
운송		2		1		1		2	1	7
전기전자				4			1		2	7
식품	1			4				1		6
자동차	1	2			1		2			6
화학·소재		1	2		2			1		6
건설		1	1		1			1	1	5
기타 제조업	1		1	1				1	1	5
반도체	1			3	1					5
인터넷·이커머스			1	1		2				4
기타소비재	3									3
미디어				3						3
부동산		1				1	1			3
에너지		1	1		1					3
제약			1	1		1				3
기타 서비스	2									2
바이오				2						2
통신	2									2
광산							1			1
방산									1	1
보안						1				1
유틸리티								1		1
컴퓨터 서비스				1						1
합계	27	14	17	40	10	20	10	17	18	173

* Merger Market · 홈페이지 · 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투자섹터: Exit('08년~'23.4월 말)

(단위: 개)

	MBK 파트너스	한앤 컴퍼니	IMM 프라이빗 에쿼티	스틱 인베스트 먼트	산업은행	SKS 프라이빗 에쿼티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VIG 파트너스	JKL 파트너스	합계
산업재	3	1	5	2	3	2	3		4	23
기타 소비재	2		1		2	2		2	2	11
레저·엔터	3		1	4	1			1		10
전기전자		1		6		1		2		10
기타 서비스		2		1	1	1		3	1	9
S/W	1	1		3		1			2	8
건설	1	2	1	1	2			1		8
제약	1		4	1	1	1				8
리테일			2			1		2	2	7
화학·소재	1			3		1			2	7
금융	2		1			1		2		6
기타 제조업	1		1	1		2			1	6
반도체				4		1		1		6
운송	1	1		1	1				2	6
방산			1	3		1				5
미디어	1	1	1	1						4
자동차			1	1	1				1	4
메디컬				2		1				3
바이오			1	1	1					3
식품		1		1		1				3
인터넷·이커머스			1					1	1	3
에너지				2						2
유틸리티			1				1			2
통신	1						1			2
광산							1			1
농업									1	1
부동산	1									1
합계	19	10	22	38	13	17	6	15	19	159

* Merger Market·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Appendix.2 주요 PE사 Portfolio: ① MBK 파트너스

현재 Portfolio ('23.4월 말 기준)

회사명	취득일	지역	섹터
NexFlex	2023-03	한국	반도체
Unimat Retirement Community	2023-02	일본	메디컬
Osstem Implant	2023-02	한국	메디컬
Medit	2022-12	한국	메디컬
Megazone Cloud Corporation	2022-09	한국	S/W
Kyungjin Textile	2022-01	한국	기타 제조업
Haihean	2021-12	중국	레저·엔터
EPS Holdings	2021-07	일본	메디컬
K Bank	2021-07	한국	금융
Tsukui Holdings Corporation	2021-03	일본	메디컬
Car Inc.	2020-12	중국	금융
CGI Holdings	2019-12	홍콩	금융
Shanghai Siyanli Industrial	2019-12	중국	기타소비재
Lotte Card	2019-10	한국	금융
Century Wendu Education& Technology Group	2019-09	중국	기타 서비스
Godiva Japan	2019-06	일본	식품
eHi Car Services	2019-04	중국	기타 서비스
BHC	2018-12	한국	레저·엔터
Golfzon County	2018-02	한국	레저·엔터
Kuroda Electric	2017-12	일본	자동차
MH&Co	2017-08	한국	기타소비재
Tasaki & Co	2017-05	일본	기타소비재
Accordia Golf	2017-02	일본	레저·엔터
HKBN	2016-11	홍콩	통신
Homeplus	2015-10	한국	리테일
NEPA	2013-04	한국	리테일
D'LIVE	2008-03	한국	통신

Source: Merger Market, 각 사 홈페이지, 기사 종합

* 해당 포트폴리오는 '23.4월 말 기준이며 Merger Market·각 사 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Appendix.2 주요 PE사 Portfolio: ② 한앤컴퍼니

현재 Portfolio ('23.4월 말 기준)

회사명	취득일	지역	섹터
SKC (industrial material business)	2022-12	한국	화학·소재
Korean Air Catering & Duty Free Services Co., Ltd.	2020-08	한국	기타 서비스
SK ecoprime	2020-02	한국	에너지
Best Western Pohang Hotel	2018-12	한국	레저·엔터
SK Shipping Co., Ltd.	2018-10	한국	운송
SK D&D Co., Ltd.	2018-09	한국	부동산
Joy Rent a Car Co., Ltd.	2018-03	한국	기타 서비스
SK Encar Direct Mall	2017-11	한국	리테일
Lahan Hotels Co., Ltd.	2017-09	한국	레저·엔터
Ssangyong C&E Co., Ltd.	2016-01	한국	건설
H-LINE Shipping Co.,Ltd.	2016-01	한국	운송
Hanon Systems	2014-12	한국	자동차
COAVIS	2013-01	한국	자동차
Hotel Le Win Co., Ltd.	2019	한국	레저·엔터

Source: Merger Market, 각 사 홈페이지, 기사 종합

* 해당 포트폴리오는 '23.4월 말 기준이며 Merger Market·각 사 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Appendix.2 주요 PE사 Portfolio: ③ IMM 프라이빗에쿼티

현재 Portfolio ('23.4월 말 기준)

회사명	취득일	지역	섹터
Megazone Cloud Corporation	2022-09	한국	S/W
Bear Robotics, Inc.	2022-03	미국	기타 제조업
Hanssem Co., Ltd.	2022-01	한국	건설
Pet Friends	2021-07	한국	인터넷·이커머스
SK Lubricants Co., Ltd	2021-04	한국	화학·소재
Hanatour Service Inc	2020	한국	레저·엔터
Genuone Sciences	2020-05	한국	제약
Air First Co., Ltd.	2019-03	한국	화학·소재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	2019-02	한국	금융
K Bank	2018-10	한국	금융
Socar, Inc.	2018-04	한국	리테일
Able C&C Co., Ltd.	2017-04	한국	기타 소비재
Woori Bank	2016-12	한국	금융
Kidari Studio	2016	한국	레저·엔터
Mars Entertainment Group	2016-04	터키	레저·엔터
Hyundai LNG Shipping Co., Ltd.	2014-04	한국	에너지
Kyobo Life Insurance Co., Ltd.	2012-08	한국	금융

Source: Merger Market, 각 사 홈페이지, 기사 종합

* 해당 포트폴리오는 '23.4월 말 기준이며 Merger Market·각 사 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Appendix.2 주요 PE사 Portfolio: ④ 스틱인베스트먼트

현재 Portfolio ('23.4월 말 기준)

회사명	취득일	지역	섹터
Helinox Inc.	2023-03	한국	기타 소비재
Carrot Co., Ltd.	2022-09	한국	금융
BY4M Co.,Ltd	2022-06	한국	미디어
Team Fresh Co., Ltd.	2022-06	한국	운송
Musicow	2022-04	한국	S/W
IME Technology sarl	2021-11	룩셈부르크	반도체
IMG Technology Co Ltd	2021-11	룩셈부르크	반도체
Tiki Corporation	2021-10	베트남	S/W
Carousell Pte. Ltd.	2021-09	싱가포르	S/W
Shin Heung Energy & Electronics Co., Ltd.	2021-09	한국	전기전자
Daeyoung Chaevi	2021-06	한국	전기전자
Juvis Diet	2020-09	한국	기타 소비재
Grab Holdings Inc	2020-09	싱가포르	S/W
IMM Technology	2019-12	말레이시아	전기전자
Dunzo Digital Private Limited	2019-10	인도	S/W
Taseco Air Services Joint Stock Company	2019-09	베트남	기타 서비스
Humax Mobility Corp	2019-08	한국	인터넷·이커머스
Joyvio Group Co., Ltd.	2019-08	중국	식품
Masan Group Corporation	2019	베트남	식품
Bespin gloal	2019	홍콩	S/W
RF Medical Co., Ltd.	2019-04	한국	메디컬
Newberry Global Limited	2019-03	홍콩	컴퓨터 서비스
Lihua Group	2018-12	중국	기타 제조업
HYBE Co. Ltd.	2018-10	한국	미디어
MSCO Co., Ltd.	2018-10	한국	기타 소비재
Viet Uc Seafood JSC	2018-08	베트남	식품
CammSys Vina Joint Stock Company	2018-07	베트남	전기전자
EV Hive	2018-06	인도네시아	기타 서비스
Gold Bricks FMS	2018-05	한국	기타 서비스
HK inno.N Corporation	2018-02	한국	제약
Daekyung Oil & Transportation Co., Ltd.	2017-06	한국	식품
Doubledown	2017	미국	레저·엔터
Nanogen Pharmaceutical BioTechnology Co., Ltd.	2017-04	베트남	바이오
COOP Marketing Co., Ltd.	2016	한국	미디어
Median Diagnostics Inc	2015	한국	바이오
Hanatour Service Inc	2015-03	한국	레저·엔터
Systran SA	2014	프랑스	S/W
Tacbright Optroincs Corporation	2013-11	대만	반도체
Dongwoo HST Co., Ltd.	2012-02	한국	산업재
Hoa Sen Group	2010-03	베트남	기타 서비스

Source: Merger Market, 각 사 홈페이지, 기사 종합

* 해당 포트폴리오는 '23.4월 말 기준이며 Merger Market·각 사 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Appendix.2 주요 PE사 Portfolio: ⑤ 한국산업은행

현재 Portfolio ('23.4월 말 기준)

회사명	취득일	지역	섹터
Woosung Plotech Co. Ltd.	2021-11	한국	화학·소재
Seoul Robotics, Ltd.	2020-04	한국	S/W
Nepes Lawey	2020-03	한국	반도체
KC EnviroService Co., Ltd.	2019-12	한국	산업재
LS EV Korea Ltd	2017-12	한국	자동차
DNACT Co., Ltd.	2015-12	한국	리테일
Sampyo Cement Co., Ltd.	2015-08	한국	건설
Stion Corporation	2012-01	미국	화학·소재
Apache Corporation (East Texas assets)	2011-12	미국	에너지
KDB Life Insurance Co., Ltd.	2011-01	한국	금융

Source: Merger Market, 각 사 홈페이지, 기사 종합

* 해당 포트폴리오는 '23.4월 말 기준이며 Merger Market·각 사 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Appendix.2 주요 PE사 Portfolio: ⑥ SKS프라이빗에쿼티

현재 Portfolio ('23.4월 말 기준)

회사명	취득일	지역	섹터
Jeil Machine Co.,Ltd.	2020-12	한국	산업재
Kang Dong Cold Storage Co., Ltd.	2020-09	한국	운송
One Store Co., Ltd.	2019-09	한국	인터넷·이커머스
Changwon Enertech Co., Ltd.	2019-04	한국	산업재
Wavve	2019	한국	S/W
ADT Caps	2018-10	한국	보안
Bagelcode, Inc.	2018-06	한국	인터넷·이커머스
Elcanto Co., Ltd.	2017-08	한국	기타 소비재
Nexpa System Co., Ltd.	2016-03	한국	기타 서비스
B&B Korea Co Ltd	2015-07	한국	기타 소비재
Kolmar	2014	한국	기타 소비재
Jw holdings	2013-06	한국	제약
Solus Advanced Materials	-	한국	산업재
Vingroup	-	베트남	부동산
Woory	-	한국	산업재
PNC labs	-	한국	기타 소비재
Musinsa	-	한국	리테일
Seojin System	-	한국	산업재
PI 첨단소재	-	한국	산업재
Standigm	-	한국	S/W

Source: Merger Market, 각 사 홈페이지, 기사 종합

* 해당 포트폴리오는 '23.4월 말 기준이며 Merger Market·각 사 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Appendix.2 주요 PE사 Portfolio: ⑦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현재 Portfolio ('23.4월 말 기준)

회사명	취득일	지역	섹터
SK on Co., Ltd.	2023-03	한국	전기전자
Daehan Shipbuilding Co Ltd	2022-05	한국	산업재
Eghis Healthcare Co Ltd	2021-11	한국	메디컬
AIMMED	2021-10	한국	메디컬
SHIN YOUNG Co., Ltd.	2021-02	한국	자동차
Myoungshin Co., Ltd.	2021-02	한국	자동차
Jeil Machine Co.,Ltd.	2020-12	한국	산업재
IGAWorks Co., Ltd.	2020-08	한국	S/W
Vingroup Joint Stock Company	2019-08	베트남	부동산
POSCO-NPS Niobium LLC	2011-03	미국	광산

Source: Merger Market, 각 사 홈페이지, 기사 종합

* 해당 포트폴리오는 '23.4월 말 기준이며 Merger Market·각 사 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Appendix.2 주요 PE사 Portfolio: ⑧ VIG파트너스

현재 Portfolio ('23.4월 말 기준)

회사명	취득일	지역	섹터
Eastar Jet Co., Ltd.	2023-01	한국	운송
SmartScore	2022-08	한국	S/W
Teazen Inc	2022-05	한국	식품
FASSTO Co., Ltd.	2022-04	한국	운송
Bio Energy Farm Asan Co., Ltd.	2021-08	한국	유틸리티
SkinFactory	2021-05	한국	기타 소비재
D.Share Co., Ltd.	2019-11	한국	기타 서비스
Bonchon International Inc.	2018-12	한국	레저·엔터
Foodist Co., Ltd.	2018-03	한국	레저·엔터
Winplus Co., Ltd.	2018-02	한국	기타 서비스
Youyoung Co., Ltd.	2017-12	한국	화학·소재
Klasse Auto Co., Ltd.	2017-09	한국	리테일
PNC labs	2017-08	한국	기타 소비재
Press & Converting Co., Ltd.	2017-07	한국	기타 제조업
Autoplus Inc.	2017-05	한국	리테일
PreedLife Co., Ltd.	2016-11	한국	기타 서비스
Winche	2015-12	한국	건설

Source: Merger Market, 각 사 홈페이지, 기사 종합

* 해당 포트폴리오는 '23.4월 말 기준이며 Merger Market·각 사 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Appendix.2 주요 PE사 Portfolio: ⑨ JKL파트너스

현재 Portfolio ('23.4월 말 기준)

회사명	취득일	지역	섹터
Sama Aluminium Co Ltd	2023-01	한국	산업재
DSEV	2022-12	한국	전기전자
LS MnM	2022	한국	산업재
Fulcrum BioEnergy, Inc.	2021-12	미국	산업재
Perennebell Co., Ltd.	2021-12	한국	기타 소비재
Cleantopia Co., Ltd.	2021-08	한국	기타 서비스
Shinheung SEC	2021	한국	전기전자
J contentree	2021	한국	레저·엔터
T'way Air Co., Ltd.	2021-03	한국	운송
Megazone Cloud Corporation	2020-09	한국	S/W
Lotte Non-Life Insurance Co., Ltd.	2019-10	한국	금융
Yulkok Co., Ltd.	2019-06	한국	방산
GS ITM Co., Ltd.	2018-12	한국	S/W
Donghae Machinery & Aviation Co., Ltd.	2018-05	한국	산업재
TCE Corporation	2016-12	한국	기타 제조업
GDK Cosmetics Co., Ltd.	2016-10	한국	기타 소비재
Kerheung Industrial Co., Ltd.	2016-08	한국	건설
YG-1 Co Ltd	2015-04	한국	산업재

Source: Merger Market, 각 사 홈페이지, 기사 종합

* 해당 포트폴리오는 '23.4월 말 기준이며 Merger Market·각 사 홈페이지·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데이터 반영일자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V.

PE 투자를 위한 산업별 전망



Overall

- '23년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심화.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감, 자국우선주의 등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
-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투자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해당 시점이 매력적 Valuation에 따른 기업인수 최적 기회가 도래하는 시기.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PE 투자가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기둔화 시기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기업에 대한 관심 고조
 - **단기적:**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Cash flow를 창출해내는 비즈니스에 관심
 - **중장기적:** 메가 트렌드에 맞는 비즈니스로의 관심 재차 높아질 전망: 디지털화, ESG, 탈세계화
- 주요 투자 테마는 ① 디지털전환 ② 포트폴리오 재정비·구조조정 ③ 공급망 & 인력확보 ④ ESG

중장기 투자 Trend



소비재 산업의 전망

- 경기둔화기 진입에 따라,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적자를 겪는 기업들은 비핵심 자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풍부한 미집행 약정금(Dry Powder)을 지닌 PE의 투자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PE들은 리스크 완화를 위해 소규모 볼트온(bolt-on) 거래와 타기업·PE와 협력을 통한 구조화 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투자 유망 영역: 소비재

<p>유통</p>	<p>유통채널 변화(Two track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의 전환 지속: 팬데믹 이후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성장세 지속 • 특색 있는 일부 오프라인 채널 성장: COVID-19 이후 대면 채널의 소멸이 가속화 되어, 반대 급부적으로 오프라인 채널의 희소성 부각. 이에 따라 공간력(Magic of Real Space)이라는 개념으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특색이 뚜렷한 일부 대면 채널 부상 전망 <p>물류 중심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채널 성공의 핵심은 효율적 배송망 구축이며,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통업체 - 물류업체 간 합종연횡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한 투자 꾸준히 진행
<p>음식료</p>	<p>공급망 확보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현지 농장·공장 등에 대한 관심 증가 <p>선택과 집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식·온라인 채널·물류시스템(콜드체인 등)에 대한 투자 지속 및 해당 투자금 마련을 위한 비핵심자산 매각 <p>푸드테크로의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아진 인건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푸드테크로의 전환을 위한 IT(로봇, 자동화 시스템구축 등) 투자가 이루어질 것 <p>친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친환경 포장·대체식품 등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 투자
<p>호텔·레저</p>	<p>디지털화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투자가 가속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호텔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 AI 로봇, 객실 IoT 서비스와 같은 기술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시키는 운영 프로세스 관련 투자 유망
<p>헬스케어</p>	<p>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투자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의존도 재평가로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투자증가 예상. 동시에 포트폴리오 최적화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기업, CDO 및 CMO 인수 경쟁 치열 전망 <p>컨슈머헬스 고성장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추세 속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 지속. 영양제 뿐 아니라, 식사대용식품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겨냥한 틈새 상품 활성화

금융 산업의 전망

- 금융산업은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경기둔화, 암호화폐 시장 혼란 등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에 직면
- 높은 자본비용으로 인해 수익률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
- 전반적으로 투자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요 투자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또한, 경기둔화에 따라 금융사들의 비핵심 자산 매각이 증가하며, 규모의 경제 달성(수익확보)을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

투자 유망 영역: 금융

디지털 전환

디지털, 플랫폼

-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플랫폼과 디지털에 대한 투자 지속
- 디지털 역량 확보 및 클라우드 기술투자로 금융기관 현대화 노력 지속
- 반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점포 축소, 인원 감축 등도 지속 추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 심사·마케팅·리스크관리 등의 영역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며,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업종 간 합종연횡

- 보험은 금융업 외 새로운 비즈니스(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Valuation 하락에 따른 투자 기회 증가

- 주요 핀테크 업체에 대한 관심 지속되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Valuation 하락. 이로 인해 주요 Player에게 투자 적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은행은 풍부한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주요 매수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 자산 매각

- 금융권이 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관심을 집중함에 따라, 비핵심자산 매각 증가 전망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몸집 키우기

-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의 제 2 금융권을 중심으로 M&A 매물이 증가할 전망이며, 탄탄한 자본을 보유한 은행 기반 금융지주 및 대형 PE사들이 주요 매수자가 될 것

해외 투자 지속

- 국내 금융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해외 금융사 M&A가 지속될 전망. 투자자들은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은행·증권·보험·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사 인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의 전망

-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가격상승, 고령화에 따른 숙련된 인력부족 등 불확실성 지속
- 기업들이 성장에서 수익으로 초점을 전환하면서, 기존 사업의 분할 및 매각을 고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미래 사업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자동화, 디지털, 차세대 원자재,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예상
- 세부 섹터별로는 자동차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주요 테마이며, 건설은 ESG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기계/장비는 니치마켓 통합 차원 투자 증가

투자 유망 영역: 산업재 및 자동차

<p>자동차</p>	<p>포트폴리오 최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부문 대변혁을 위한 투자 지속.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집중. 파워트레인 섹터 부품 기업들의 구조조정형 or 합병추진형 M&A 증가 예상 <p>SW 투자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W뿐 아니라 SW(플랫폼, 커넥티브카 등)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증가 <p>공급망 안정화 및 자동화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히 배터리분야 전략적 제휴 증가 – 인건비 상승, 노조 등의 이슈로 공장 자동화를 위한 투자 가속화
<p>건설 부동산</p>	<p>ESG 분야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에 대한 관심 증가하며, 친환경 공장 및 스마트 시티, 에너지 절감형 건축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p>물류센터 성장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어려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
<p>제조업</p>	<p>포트폴리오 최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추구 <p>자동화 관련 투자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제조업은 자동화에 관련 투자 의지가 더 강해질 것.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동화 설비투자 등을 진행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자동화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로봇·AI·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M&A 증가 기대 <p>ESG 관심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부각에 따라 탄소절감기술, 리사이클링 기술에 대한 관심 지속
<p>조선</p>	<p>친환경 선박 기술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해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적 역량(숙련된 노동력 포함)요구되며,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 지속 <p>디지털 관련 투자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디지털화에 따라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관심 증가 예상

에너지 · 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의 전망

-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는 섹터 전체를 이끄는 강력한 투자 유인
-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배터리 저장, 배전 인프라 등의 고성장 분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ESG에 관심 집중 예상
- 섹터별 전망
 - 광업 및 금속: 자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통합형 M&A 확대
 - 석유 및 가스: 저탄소 사업 투자 확대 전망
 - 전력 및 유틸리티: 에너지 전동화(Electrification),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화학: ESG 관련 관심 지속

투자 유망 영역: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자원 확보	<p>핵심 자원 확보·미국 IRA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광물(특히 배터리 부문) 확보를 위해 해외 광산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적극적 투자. 특히 미국 IRA로 인해 중국 등 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제조된 부품과 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체 공급처 확보가 중요. 안정적 원료 수급처 확보를 위해 직접적 해외 광산 투자 및 리사이클링 업체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등 다방면 투자 <p>수직 계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요구에 따라, 수직계열화를 위한 국내 기업 M&A 증가 전망
ESG	<p>포트폴리오 최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탄소 및 친환경 에너지 부문으로 자본배분을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 추구. 특히 고탄소 배출 사업부문 축소 지속 <p>탄소감축·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태양광보다는 풍력,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투자 지속되며, 재생에너지 기술, 탄소포집 등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할 전망 <p>리사이클 분야 관심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금속 및 화학 폐기물 분야의 리사이클 관심 증가. 특히 전기차 확산에 따라 폐배터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며,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예상
에너지 인프라	<p>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포트폴리오 최적화 지속. 탄소배출시설 매각 또는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원 투자 지속. 전기차 충전 관련 투자 확대 <p>에너지 공급망 안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예견되나, 당분간은 화석연료가 필수적. 이에 따라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각국 정부·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증가. 중단기적으로는 가스섹터,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증가 전망 <p>디지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망 지능화·고도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최적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투자 지속

IT 산업의 전망

-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나,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DX), 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기반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 지속
- 디지털기반 경험으로의 장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증강·가상현실, NFT), 통신망 확장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 지속 . 또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기업(예, SaaS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상승
- 빅테크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ESG 관련 규제 강화 고려한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

투자 유망 영역: IT

Tech	<p>반도체·하드웨어: 안정적 공급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션 및 경기둔화로 인해 소비자 구매력 감소. 이에 따라 Tech 분야는 전반적인 조정기에 진입했으며, 설비 관련 신규 투자에 보수적일 전망. 다만,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필수 부품·원료 관련한 투자는 활발히 진행 <p>소프트웨어: 유망기술에 대한 관심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하강기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속. AI·빅데이터·클라우드·메타버스 등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음. 낮은 Valuation을 기회로 삼아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것 <p>IT 서비스: 디지털·사이버보안·유저 프렌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보안, DevOps, 디지털 전환, 로우코드(low code)가 향후 주요 테마로 떠오를 것이며, 인력 부족 이슈로 인해 핵심 IT 분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형 M&A 증가 전망
인터넷 플랫폼	<p>플랫폼: 콘텐츠 및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확장 지속.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진출 등을 통해 영역 확장 지속되며, 해외 플랫폼 업체 인수 뿐 아니라, 콘텐츠·쇼핑·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의 회사들 대상으로 투자 가속화
미디어 엔터	<p>엔터: 업종 내 활발한 M&A 지속, 콘텐츠 확보를 위한 플랫폼업체들의 진출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K-드라마 등 콘텐츠 확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지속. 경기둔화로 인해 실적이 저하된 엔터 기업들이 매물화되면서, 엔터 업종 내 M&A가 활발히 진행될 것.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엔터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 전망 <p>광고: AD-Tech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Tech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것. 특히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
통신	<p>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데이터센터, IoT, AI 등에 대한 투자 지속 <p>포트폴리오 최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심 자산 및 유형자산 부문 스핀아웃 또는 매각으로 현금 확보 • 고수익 흐름 창출을 위한 M&A 추진(특히 데이터분석,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VI.

국내 PE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언



전략적 제언 – G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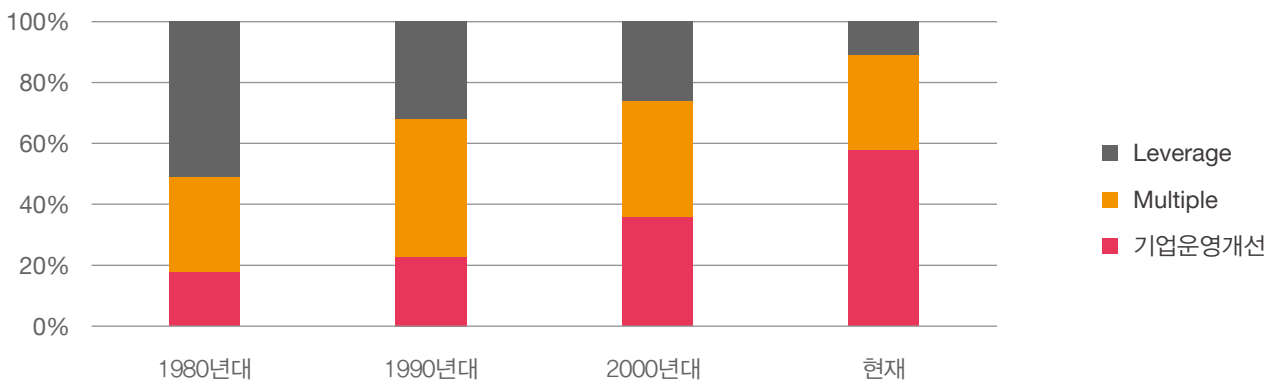
1. 글로벌 투자 확대

- 국내 PEF는 국내에 집중된 투자 진행. 국내 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
- PE는 지역적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이나 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함. 이에 따라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보다, 투자 거점이 되는 일부 국가를 선정하여 업력을 쌓는 전략 권고. 이 과정에서 투자기회 발굴,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상황에 적합한 가치제고 활동, 회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글로벌 PE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 고려하여, 환헤지에 대한 노하우 축적 요망

2. 운용역량 제고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제도('15년) 도입 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으로 GP 설립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 대폭 완화. 이에 따라 다수의 GP가 시장에 진입하여, 구조화 중심의 소형 프로젝트 펀드 운용. 또한 소규모의 AUM으로 인해 충분한 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해 리스크 분산에도 난항 → 운용 규모의 확대가 필수
- 운용 규모 확대를 위해 LP와의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수익률에 대한 Track Record가 밑바탕이 되어야함
- 과거 PEF는 Leverage와 Multiple 효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운영개선 (Operational Improvement)를 통한 가치 창출이 가장 중요. 이를 위해 다양한 기업운영의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확보 또는 전문성 있는 외부 자문사 활용이 필요

PEF의 가치창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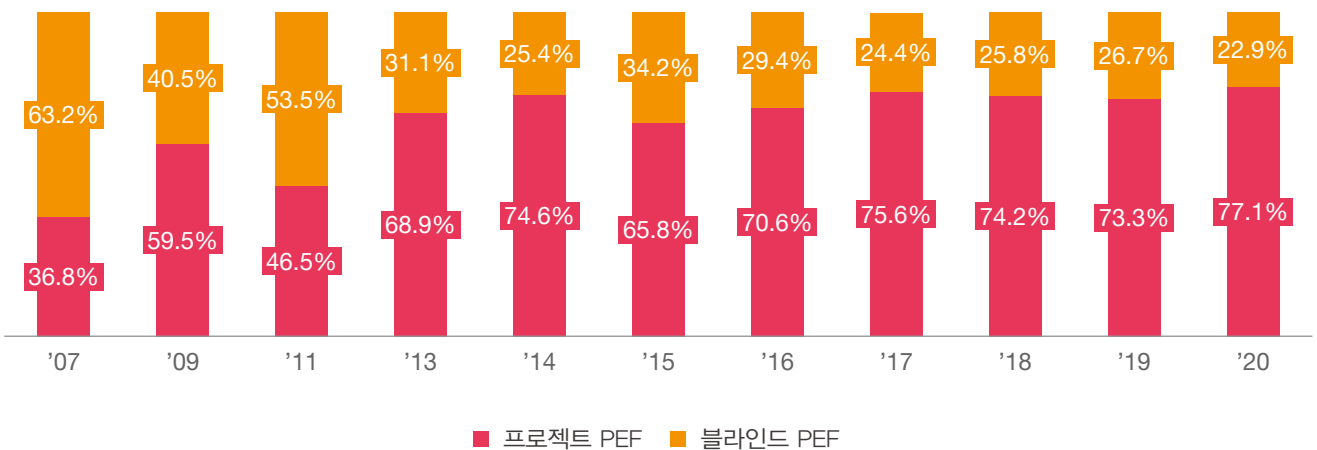
Source: EY Private Equity Analysis, 한국금융연구원 재인용(2019)

전략적 제언 – LP

1. PEF에 대한 투자 인식 제고

- PEF는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LP들은 보수적인 운용을 선호함에 따라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이에 따라 투자기간이 짧아지고, 기업가치제고의 전략적투자보다 재무적투자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의 PEF는 보수적 투자성향을 가진 대형 연기금들이 출자를 주도하면서, 프로젝트 PEF¹⁾ 비중이 높고, 블라인드 펀드²⁾의 비중이 낮은 특징 보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중점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위험 및 성과를 공유하는 모험자본 성격은 점진적으로 퇴색

신규 PEF 구분



Source: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 PEF 제도 도입 후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GP의 운용 경험과 LP의 투자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해지는 시점. LP는 전체 투자금액 중 일정 부분을 블라인드 펀드 등 GP 역량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문에 투자하여, 다양한 투자기회 및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투자전략 전환 필요

1) 프로젝트 PEF: 특정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사전에 정하고 설립되는 PEF

2) 블라인드 PEF: PEF 설립시 구체적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GP의 운용능력을 기초로 투자자를 확보한 후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PEF

전략적 제언 – 정부

1. 제도 개선(규제 단일화)

- 외국의 경우 PE의 범위 안에 VC, Growth, 메자닌, 바이아웃등이 모두 포함되어 단일법 체계하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은 관련법이 여러 분야에 혼재되어 있음
 - 벤처투자: 창업법, 벤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이 존재하며, 소관부처도 금융위, 중기부, 농림부 등으로 여러 곳에 걸쳐 있음
 - 기업재무안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이 존재
-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절하고 신속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 필요

벤처 관련 투자기구

구분	창업·벤처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법	자본시장법	창업법/벤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농수산식품투자법
도입 시기	2017	창투조합:1986 벤처조합:1998	1986	2010
운용	GP	창투사, 신기사, LLC, 외국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투사, 신기사, LLC, 농협중앙회 등
투자 의무	창업·벤처기업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	창업·벤처기업 (40% 이상)	-	농식품경영체 (60% 이상)
소관 부처	금융위	중기부	금융위	농림부, 해수부

Source: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금융연구원 재인용(2019)

2. 정보 비대칭성 개선

- 현재 PE 자료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매년 발표되는 정기보고서도 PEF에 대한 간단한 현황만 공유되는 수준으로,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 게다가 사모펀드 체계개편('21년) 이후 펀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vs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구분하면서, PEF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짐
- 투자자(LP) 저변을 확대하고 PE의 규모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PEF의 투자자(LP)와 운용 성과, 투자기업,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바람직.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GP 내 옥석가리기가 가능하여, 부실한 GP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화되고, 역량있는 GP로 LP 자금 집중 가능. 또한 GP의 불법행위도 검증 가능하여,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가능

3. 중장기 투자를 위한 유인책 제공

- 한국 PEF의 평균 존속기간은 3.9년('22년 회수된 펀드 기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회수 기간이 단기화되고 있음

* Exit 펀드의 평균 존속기간: ~'17년 4.25년 → '20년 4.0년 → '22년 3.9년

- 성장자본 공급이라는 PEF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투자기간을 장기화할 유인책 제공 필요. 일정 기간 이상 존속한 PEF에 대해 법인세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을 통해 투자기간 장기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4.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환경 구축

- 글로벌 PEF는 Tech, 비즈니스 제품·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50% 이상을 이루는 반면, 국내 PEF의 주된 투자처는 제조업(전체 투자금액 중 43%)으로 Tech에 대한 투자가 미미
- 국내 PEF가 Tech 섹터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타 섹터 대비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PEF 도입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Tech 기업에 대한 투자시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등을 제공 필요

주요 용어

주요 용어	Full Name	의미
AUM	Assets Under Management	운용자산
BW	Bond With Warrant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연계채권
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Deal Count		실행거래건수
Deal Volume		실행액
Dry Powder		미집행 출자약정액
Fundraising		자금모집액
GP	General Partner	무한책임사원, 통상 GP를 PE사로 명칭
Growth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자본
Hedge Fund		경영권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데 주력하는 사모펀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
IRR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
LBO	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LP	Limited Partner	유한책임사원
M&A	Mergers & Acquisitions	인수 합병
NAV	Net Asset Value	순자산
PE	Private Equity	주로 특정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지분형 증권에 투자
PEF	Private Equity Fund	PE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
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
VC	Venture Capital	창업단계의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추구
약정액		투자자가 PEF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
이행액		투자자가 PEF에 실제 출자한 금액
블라인드 PEF		PEF 설립시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GP의 운용능력을 기초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PEF
프로젝트 PEF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고 설립하는 PEF

참고 문헌

- Mckinsey & Company, Private markets turn down the volume, 2023.03
- Bain & Company, Global Private Equity Report, 2023
- Bain & Company, Asia-Pacific Private Equity Report, 2023
- PwC, Trends in Japan's private equity market and related considerations, 2022
-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자본시장에서 PEF의 역할과 발전방향, 2019.11
-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PEF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20
- 자본시장연구원, 해외선진PEF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2012.11
-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2021.08
-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 2021.08
- 금융감독원, 국내 PEF 도입 10년의 변화 및 평가, 2015.03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 2022.05
- 금융감독원, 2020년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 2021.07
- 금융감독원, 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2022.05
- 금융감독원, 2022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2023.06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삼일PwC경영연구원장
02-709-8820
jaeyoung.j.choi@pwc.com

이은영 Managing Director
02-709-0824
eunyoung.lee@pwc.com

오선주 Senior Manager
02-3781-9344
sunjoo.oh@pwc.com

강서은 Manager
02-3781-9137
seo Eun.kang@pwc.com

최형원 Senior Associate
02-3781-9638
hyungwon.choi@pwc.com

신서윤 Assistant Associate
02-3156-5334
seoyoon.shin@pwc.com

Business Contacts

Deals Leader

박대준 Partner
dae-joon.park@pwc.com

Client & Market Leader

유상수 Partner
sang-soo.yoo@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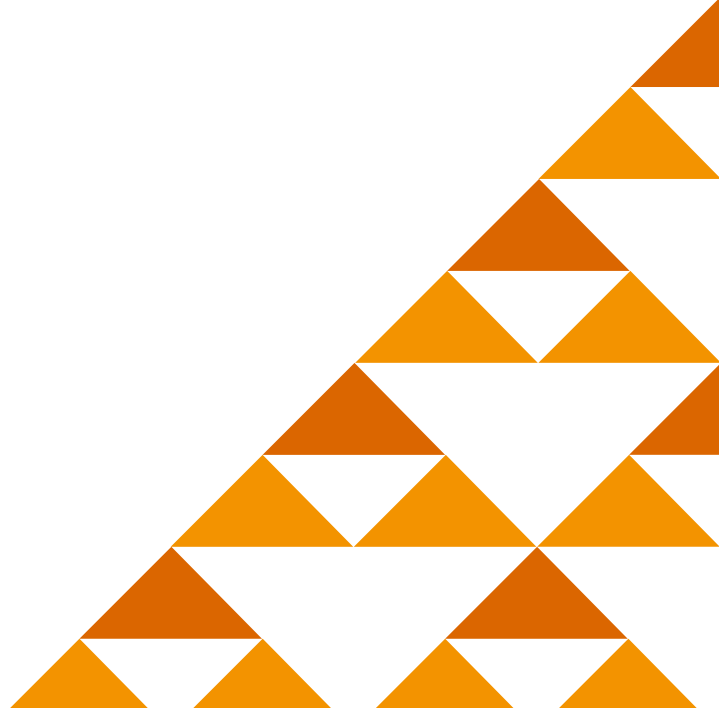
Deals Deputy Leader

민준선 Partner
joon-seon.min@pwc.com

류길주 Partner
gil-ju.ryu@pwc.com

PE Service Leader

성낙필 Partner
nack-pil.sung@pwc.com



www.samil.com

S/N: 2307W-RP-032

© 2023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